

## SPECIAL ENDLESS CHALLENGES

**KIPA ACTIVITY** / ① 발명으로 세상을 바꾼다 - 〈세바시〉와 함께한 지식재산 스토리 페스티벌  
② IP세상, IPAT으로 준비하자!

**COLUMN** / 창의적 사고 · 열정적 도전이 창조경제의 핵심 - 남민우 위원장

**INTERVIEW** / 건강함을 가득 담은 차(茶)의 반격 - 최승윤 대표

09  
10

VOL.442  
2013  
SEPTEMBER  
OCTOBER



# 끝없는 도전



## ENDLESS CHALLENGES

“수 천 번의 실패를 두고 사람들은 내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 천 가지 방법들을 얻어냈다.”  
-토머스 에디슨-

“실패를 통해 진정한 나 자신과 대면했고,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았으며 집중할 수 있었다.”  
-조앤 K. 롤링-

“기쁨은 혁신을 추구하다 실수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빨리 인정하고 다른 혁신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스티브 잡스-

실패한 도전은 무의미 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 역시 실패자라고 불려야 할 것이다.

약 1,200번의 실험에서 실패한 끝에 전구의 불을 밝히는데 성공한 에디슨,  
동화를 쓰고 싶다는 열망을 현실로 옮겨 천신만고 끝에 '해리포터'를 출간한 조앤 롤링,  
그리고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 난 후 좌절감에 사로잡히지만  
실패를 성공으로 뒤바꾸면서 다시 한 번 애플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스티브 잡스까지.

이들의 실패를 우리가 '위대한 실패'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그들의 도전이 실패에 의해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실패를 통해 위대한 성공을 맞이하라.  
끝이 없어 보이는 위대한 도전이 당신을 끝이 보이는  
성공의 문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세상을 밝히는 발명과 특허 이야기

# 발명특허

2013  
SEPTEMBER  
OCTOBER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전문정보지 [발명특허]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는 본회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발행일 | 2013년 10월 5일

발행처 | 한국발명진흥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발행인 | 김광림 편집·기획 | 한국발명진흥회 기획팀 박선민(02.3459.2727) www.kipa.org

편집디자인·제작 |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com



## contents

<b>SPECIAL</b>	<b>ENDLESS CHALLENGES</b>	
<b>KIPA ACTIVITY</b>	① 발명으로 세상을 바꾼다	<b>04</b>
	- 〈세바시〉와 함께한 지식재산 스토리 페스티벌	
	② IP세상, IPAT으로 준비하자!	<b>09</b>
<b>COLUMN</b>	창의적 사고·열정적 도전이 창조경제의 핵심 - 남민우 위원장	<b>10</b>
<b>INTERVIEW</b>	건강함을 가득 담은 차(茶)의 반격 - 최승윤 대표	<b>14</b>
<b>IP FOCUS</b>	① 오바마 美대통령 때문에 많이 당황하셨나요?	<b>18</b>
	② 23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디자인보호법, 알고 계십니까?	<b>22</b>
	③ 한·중·일 협력의 시대, 지식재산권이 핵심이다	<b>26</b>
	④ 정부3.0시대가 요구하는 개방형 공공서비스 KIPRIS PLUS	<b>30</b>
	⑤ 글로벌 동향	<b>34</b>
발명가 사람들	꿈을 현실로 만드는 작업, 창의적 아이디어 모두 모여라	<b>38</b>
지식 더하기, 기술 나누기	앞선 기술력으로 미래를 선점하는 기업 - 비나텍(주)	<b>42</b>
트렌드 리포트	흙,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피어난다(GARDEN-EDU)	<b>46</b>
생활 속 발명이야기	당신도 '발명왕'이 될 수 있어요 - MBC 〈도전! 발명왕〉	<b>48</b>
IDEA 공작소	우리가 삶에서 누려야 할 행복과 즐거움 '지금, 여기의 예술'	<b>50</b>
IP NEWS		<b>54</b>
KIPA NEWS		<b>58</b>
특허 Q&A		<b>62</b>

# 발명으로 세상을 바꾼다



##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과 함께한 지식재산 스토리 페스티벌

지난 8월 5일, 목동에 소재한 KT제임버홀에는 발명가들의 경험담을 듣기 위한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다. CBS에서 진행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하 '세바시')>에 발명가 6명이 출연, 발명과 관련된 자신의 체험을 솔직하게 풀어놓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특허청·한국 발명진흥회가 함께 '지식재산 스토리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번 방송은 창조경제 시대에 떠오른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대중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열었다. 이날 녹화 현장에 함께한 500여 명의 청중은 6명 강연자들의 이야기에 웃고 또 감동했다.



#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 분

### 이웃에 대한 관심 있다면

이날 <세바시> 연사자로 나선 김영민 특허청장은 '한국인의 발명 DNA'라는 주제로 강연을 선보였다. 현재 우리사회는 발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김영민 특허청장은 "그런 관점보다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곧 발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그는 "발명은 에디슨과 같이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다. 이웃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발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더 깊이 생각해보고자 발명 'DNA'를 나름대로 정리해 봤다.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이 아닌, 다양한 것을 발견(Discover)하고, 새로운(New) 것을 만들며, 직접 실행에 옮겨(Act) 생각을 현실화해야 한다. 지혜로운 습관이 중요한 만큼 평소 메모를 적어두는 습관을 기른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민 청장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창조경제에서 지식재산은 결과물인 동시에 이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때문에 앞으로의 사회는 많은 지식재산이 창출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이 풍부한 나라가 참된 선진국가 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는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터넷에 올리고  
공유함으로써

이를 통해  
가치 창출을 하는 게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열릴 것이다



#### 발명이 어렵다고요?

또 다른 연사자인 장진태 AAUXX 대표는 뮤지션에서 발명가로 전향한 다소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버클리 음대에서 음악을 전공한 그가 발명가가 됐다는 사실은 발명이 영동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한 대중들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자신의 별명이 어렸을 때부터 '장가이버'였다고 운을 떼며, "어린 시절부터 뭐든 만드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아이디어도 많고 호기심도 많다보니 '장가이버'라는 별명이 붙었다. 뿐만 아니라 음악도 무척 좋아해 결국은 음악 전공의 길을 택했다. 하지만 음악을 공부하는 와중에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결국 미국유학 당시 성공한 발명가들로부터 용기를 얻어 발명가가 되고자 무작정 귀국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얼마 전 진로 엑스포에 진로상담을 하러 갔는데 많은 학생들이 발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정작 발명을 직업으로 꿈꾸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아마 수입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인 것 같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한 나라 안에서 계속 나와야 하는데,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배출되는 아이디어가 적다.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확률이 적은 것"이라며 국내 발명현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장 대표는 과거 10년을 인터넷이 바꿨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창의교육은 매우 필요한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황성재 카이스트 박사과정 학생은 발명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로 대중에게 다가갔다. 익살스럽고 재치 있는 입담으로 좌중을 압도한 그는 발명가로서의 자신의 삶을 언급하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발명 능력의 중요성과 다가올 시대의 인재상 등에 대해 대화를 이어갔다.

황성재 학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발명이라는 것이 괴짜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사고가 팽배한 것 같다”며 “이러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발명이 매우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청중들이 발명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을 풀고, 다가올 시대에 더욱 중요한 인재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연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한 개인이 대기업과 동등하게 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제도가 꼭 필요하다. 나 역시 특허제도가 없었다면 대기업과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터넷에 올리고 공유함으로써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들의 호기심, 당신에게도 있나요?

한재권 로보틱스 수석연구원은 ‘로봇을 발명해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청중과 조우했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친동생을 도와줄 방법을 고민하다 로봇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이민정책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며 현 사회문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때문에 로봇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한재권 연구원은 “로봇은 아무래도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로봇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더불어 지금은 로봇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공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강연을 통해 사람들의 로봇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다”며 강연의 계기를 설명했다.

한 연구원은 “로봇 연구에 대해 대중이 갖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다. 한 부류는 로봇을 흥미로워



01. '한국인의 발명 DNA'라는 주제로 강연을 선보이고 있는 김영민 특허청장

하며, 다른 한 부류는 두려워한다. 후자는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래는 로봇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보다 우리의 삶을 로봇이 돕는 운택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강연을 통해 그러한 미래에 대해 말해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번 강연의 최연소 연사자로 나선 김지효 학생은 '여러분의 꿈의 중심은 무엇인가요'라는 주제로 청중과 만났다. 그녀는 발명가가 되기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화제를 모았다. 이후 KBS 취업알선 프로그램 <스카우트>를 통해 대기업에 입사했으며, 현재는 한양대 산업공학과에 재학하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독특한 상상을 좋아했던 김지효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과 학교 공부를 병행하다보니 꿈에도 중심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때문에 이 자리에서 청중들에게 질문하고 싶었다. 당신의 꿈의 중심은 무엇인지. 현재 나의 꿈은 '발명하는 여대생'이 되는 것이다. 내게 꿈의 중심이 있었기에 지금의 '김지효'가 있을 수 있었다. 꿈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귀한 발명품"이라고 강조했다.

정규진 GEN3 파트너스 코리아 상무는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Creative Innovation)의 9가지 원칙'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창의적 발명이나 문제 해결을 '영감'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조언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고력이 높아진다면, 사람들은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문제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보다 본질적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 타협하지 않고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혁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의성 발취요소로 '지식'과 '스킬', '모티베이션(Motivation)'을 언급한 정 상무는 "문제를 풀기 위한 욕구와 열정이 올바른 생각의 길로 유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발명진흥회 조은영 부회장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발명을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오는 11월 11일, 두 번째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발명특허**



01



# IP세상, IPAT으로 준비하자!

## 지식재산능력시험(IPAT)의 모든 것



IPAT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시행하는 국내 유일 지식재산능력 검정시험으로,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연구원, 발명가 등 IP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고자 하는 사람 등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IPAT은 지식재산의 기초적인 법률 지식을 테스트하는 지식재산의 기초, 연구결과물로부터 지식재산을 실질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실무적인 특허검색 및 출원을 다루는 지식재산의 창출, 지식재산을 법률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심판, 소송의 내용을 다루는 지식재산의 보호, 지식재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출제범위로 하고 있으며 총 60문항, 5 지선다형(OMR기입식)으로 출제된다. 결과는 등급제(총 4등급)로 나뉘어 점수와 등급이 병기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험이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www.ipat.or.kr, 연중상시)·오프라인 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단체 응시(10명 이상)의 경우 응시료 할인혜택 등이 적용되며, 지난 6회 정기시험 이후 회차별 1등급 획득자 등 성적우수자의 경우 시상과 소정의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회차	시험일	접수기간
6회	2013년 11월 23일(토)	2013년 10월 21일(월)~11월 8일(금)

※ 온라인 접수 : www.ipat.or.kr

### 성적 우수자 후기

“ 조호성(취업준비생) /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법의 체계가 안정되고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운영자, 회사원, 엔지니어 등 모두에게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IPAT 응시는 직무범위와 실무역량에 필요한 지식재산능력을 갖추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IPAT에 응시하여 지식재산능력을 검증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폭넓고 올바른 지식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최철희((주)웍스,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업무 담당) / IPAT은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에서부터 관련분야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까지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사항뿐만 아니라 지식재산평가·거래, 라이선싱과 같이 기업체에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까지 다루고 있으므로, 성실히 준비하여 좋은 성적을 얻는다면 지식재산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능력을 가진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PASSIONATE

CHALLENGES

고용 없는 성장을 풀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창업이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에 기반한 청년 창업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며, 청년 실업을 해소해 사회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열쇠다. 그러나 벤처 창업의 본질적 특성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이다. 즉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하나의 성공한 기업은 나머지 9개의 실패한 기업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기여도가 높다. 특히 청년 창업은 아이디어나 기술에 기반하는 사업 특성상 실패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한 번의 실패가 재기불능으로 이어지는 사회 시스템이라면 청년 창업은 위축되고 성장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

## 창의적 사고 · 열정적 도전이 창조경제의 핵심

성실한 실패가 곧 우리의 자산이다

### 무사안일이 가장 큰 적

실패에 인색한 환경 속에서 모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뒤흔쳐나와 창업에 나서라고 독려할 수는 없다. 하지만 창업을 고민하거나, 미래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말이다. 창업이 꼭 성공으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실패한 도전도 자산이 되어 본인의 경쟁력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창업과 창업실패의 경험은 재창업과 취업에 있어 훌륭한 내적 자산이 된다.

필자도 처음에는 평범한 대기업 직장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그리고 창업으로 이어지는 도전을 통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개척하며 걷고 있다. 지금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후배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처음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그다지 거창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나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는 아니라고 느꼈다. 장비 국산화 개발이라는 꿈을 안고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했는데 여기서 큰 좌절을 경험해야 했다. 스카우트를 제외할 때 약속했던 국산화 개발은 커녕 장비 수리 업무만 수행해야 했던 것이다. 6년간의 대기업 생활과 2년간의 중소기업 생활을 뒤로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의 끝에서 내린 최선의 선택이 결국 스스로 회사를 차리는 것이었다.



1991년 코리아 레디 시스템이란 회사를 창업했다. 4명의 직원이 20평 남짓한 공간에서 시작한 아주 작은 회사였다. 당시에는 벤처라는 단어도 없었고, 중소기업이라고 해봤자 대기업 하청업체 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열악한 창업환경이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의 심정으로, 3천만 원의 은행 빚과 함께 감행한 도전이었다. 처음 1년간은 잠도 잘 오지 않았다. 밤잠마저 잊은 노력으로 다행히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2년 뒤에는 다산네트웍스의 모체가 되는 법인도 설립했다. 사업은 큰 어려움 없이 순항하는 듯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1997년 말 들이닥친 IMF 금융 위기는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파괴했다. 미국 회사에 소프트웨어 수입 대금을 달러로 송금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율 폭등은 재앙으로 들이닥쳤다. 매출은 뚝 끊어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사업이 마비됐다. 고민 끝에 미국으로 날아가 송금 유예를 요청하고, 내친김에 거래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12명의 엔지니어와 함께 1년간 현지에서 외화벌이도 하고, 때마침 인터넷과 나스닥 붐이 절정에 이르러 활력이 넘치던 실리콘밸리에서 다음 사업을 구상할 수 있었다. 인터넷이 향후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였고, 시스코와 같은 인터넷 장비 사업이 유망업종으로 눈에 들어왔다.

1998년 한국으로 돌아와 시스코를 벤치마킹한 인터넷 장비 개발사업에 도전했다. 이는 2000년 코스닥 상장이라는 결과물로 돌아왔고, 현재

다산네트웍스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 잡으며 사업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 IMF라는 위기가 없었다면, 다산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계기는 마련되지 않았을 것이며, 통신장비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위기는 극복하면 언제나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것을 속 깊이 깨닫게 된 계기였다.

#### 실패를 알아야 성공이 보인다

이후에도 절체절명의 위기는 3~4년에 한 번씩 계속됐다. 2001년 IT 버블 붕괴와 2004년 사업 지속성의 한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내외부의 위기는 2004년 지멘스에 경영권을 넘겼다가 2008년 다시 인수하는 결단까지 내리게 했고, 이후 금융위기의 한파 속에 휴직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뼈를 깎는 고난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 순간마다 정면 돌파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섰고, 각고의 노력으로 체질 강화에 성공, 보다 강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런 22년간의 창업과 도전, 기업 경영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청년들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쳤고, 언제 또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또 창업을 할 거냐고 묻는다. 또, 창업을 하면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용기를 내야 하나고 묻는 경우가 많다.

모두가 성공만을 생각하고,  
큰돈 벌기를 꿈꾼다면,  
창업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모른다

창조적 도전은  
항상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성공만을 생각하고, 큰돈 벌기를 꿈꾼다면, 창업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모른다. 창조적 도전은 항상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 창업가는 통상 3~4번의 실패를 거쳐 성공한다는 통계가 있다. 3~4번의 실패를 밑거름으로 다시 도전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공의 가능성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셈이다.

물론 젊은이들에게 용기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가 나서서 기업가에게 과도하게 위험을 전가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창조를 위한 도전에서 비롯된 성실한 실패는 지탄의 대상이 아닌 재도전을 위한 자산이 되고, 격려의 대상이 될 때, 우리 사회는 지속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창조경제 사회로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연대보증제도 폐지다. 창업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연대보증제도는 창업 의지를 저해하는 독버섯, 그리고 연좌제로 불리며 끊임없이 폐지가 주장되어 왔지만, 오래된 악습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문제다. 이와 함께 엔젤투자 활성화 및 창업 멘토링 등 사전적으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및 사후적으로 실패로부터 재기할 수 있는 제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패한 기업의 자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M&A나 기술이전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성공 확률이 낮은 벤처 창업 생태계에서는 창업 활성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업의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실패 시 퇴출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안에서 스타 창업가를 많이 양산해 내야 제도적 변화와 함께 사회 저변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창업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 IMF 이후로 더욱 만연하고 있는 안정적 직장에 대한 선호는 능력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모두 공사나 공무원, 대기업을 목표로 스펙 쌓기에만 열중하게 만들었다. 연대보증의 폐해를 눈으로 목격해 온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재도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회 시스템이 문제다. 사업을 한다고 하면 부모가 나서서 말리는 문화 속에서 아이들에게 도전정신을 강조한들 소용이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국내 주요대학 공학계열 박사졸업 예정자 155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 희망직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학계열 박사졸업 예정자의 53%는 대학, 37%는 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했고, 나머지 10%만이 창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예비 공학박사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한국과 달리 기업 47%, 대학 32%, 창업 21%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비즈니스로 연결하려는 동인이 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창조경제를 이끌 핵심인재는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할 연구 인력인데, 이러한 인력들이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대학과 공공연구소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그리고 훌륭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처럼 실패에 대한 부담과 벌칙이 큰 사회적 환경에서는 누구도 선뜻 창업에 나서는 것이 쉽지 않다. 실패에 인색한 창업환경에서는 창조경제도 없다. 발명특허



글 남민우  
청년위원회 위원장  
한국벤처기업협회 회장  
다산네트웍스 대표이사

'커피 공화국'이라는 호칭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지난 5년간 국내 커피전문점 숫자는 7배가량 늘었다.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다. 이처럼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커피전문점 시장에 '한방차'라는 새로운 반격의 카드를 들고 나온 젊은 기업가가 있다. 한방차 카페 '오가다'를 운영하고 있는 최승윤 대표 얘기다. 그는 한국의 차(茶)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젊은 세대들에게 커피를 대신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음료시장에 건강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 건강함을 가득 담은 차(茶)의 반격

## '고객의 마음을 제대로 훑치다'

최승윤 한방차 카페 (주)오가다 대표



01. 메인 음료의 컵 홀더에는 한국의 전통색이자 오행의 각 기운과 직결된 검정, 파랑, 노랑, 하양, 빨강의 오방색을 넣어 모던하게 디자인했다. 02, 03. 2007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을 졸업한 최승윤 대표. 2005년에는 O 디자 인회사 리임커뮤니케이션 대표로 회사를 꾸려나갔으며, 2010년부터 (주)오가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 확실한 비전을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하다

지난 2009년 7월, 서울 무교동에 7㎡(2평) 크기의 작은 카페 '오가다'가 문을 열었다. '다섯 가지 아름다운 차'라는 의미와 '오고, 가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카페는 한방차라는 독특한 아이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당시 26살이었던 최승윤 대표는 철저한 분석과 계획 하에 창업을 준비했다.

"한방차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맛이 쓰고, 낡고 오래된 느낌, 선입견이 문제였죠.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외면 받아온 한방차를 새로운 이미지로 재조명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결국 대학 때 모은 5000만 원을 토대로 초기 자본 1억 원을 마련해 작은 점포를 냈습니다. 직접 10분 단위로 유동인구를 체크하고, 상권분석 등 시장 환경을 분석한 후 선택한 곳이었죠. 디자인 전문가, 한의사 등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가게 인테리어를 하고 여러 가지 메뉴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점 첫 날, 오가다를 찾은 손님은 한명도 없었다. 잘 될 거라고 굳게 믿었던 최 대표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유는 간단했다. 노점 같은 작은 가게에서 영업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최 대표는 함께 일하는 멤버들과 긴급회의를 가졌다.



사업에 대한  
경험, 정보력,  
인적 네트워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04



04. 제주 한라봉빙수와 석류오미자차. 오가다는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음료라인을 갖추고 있다. 국내산 원재료를 그대로 정성을 담아 12시간 푹 다려서 만든 핸드메이드 한방차이며, 모든 메뉴는 한약사와 한의사의 감수를 거치고 있다. 05. 오가다는 국내 최초 한방차 프랜차이즈업체로서 대량화·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고려한약유통공사와 MOU를 체결, 고품질의 한약재를 안정적으로 수주 및 공급하고 있다. 06. 문화일보 매장. 매장 분위기는 현대적 감각으로 단아하고 세련됐다.

“만약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됐다면, 우리의 성공스토리는 시시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잘 됐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극복해야 했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매장 앞에서 매일 춤을 추자’는 것이었다. 한방차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했기 때문이다. 멤버들은 모두 인형 탈을 쓰고 밖으로 나갔다. 이는 곧 신규고객 창출로 이어졌다.

두 번째는 ‘손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자’였다. 손님들의 명함을 받고, 이름과 즐겨 찾는 메뉴, 메뉴에 대한 피드백, 손님의 생김새 등을 적어 놓고 외웠다. 그러다보니 길을 지나가다 마주쳐도 더 반갑게 인사할 수 있게 됐고, 재구매 고객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세 번째는 ‘목표를 항상 공유하자’였고, 네 번째는 ‘힘들 때일수록 여유를 갖자’였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손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가게가 되자’였다. 하루에 100명의 손님이 방문했을 때, 감동 받은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가게와 하루에 단 한 명이 방문했지만 그 한 명을 감동시킨 가게가 있다면, 후자가 더 성공한다는 것이다. 오가다가 그랬다. 이들의 감동서비스는 손님들로 하여금 오가다에 애정을 갖게 만들었고, 하루 방문 고객이 한 달 만에 500명으로 늘어났다.

작은 사무실로 가맹점을 낼 수 있다는 문의도 끊임없이 들어왔다. 점포수는 3년 만에 70여개로 늘었다. 매출은 매년 2배씩 증가했다. 2010년 10억 원이던 매출은 2011년 27억 원, 2012년 40억 원으로 뛰었다.

“지난 6월에는 서울 서대문역 인근 스타벅스 매장 옆에 오가다가 들어섰습니다. 스타벅스와 같은 상권에서 같은 크기의 매장으로 경쟁하게 된 것이죠. 앞으로 ‘한방’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사업을 확장하는 하나의 도구인 셈입니다.”

**이제는 지식재산 경영이 중요한 때**

상표는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따라 총 45개류의 상품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제1류~제34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품군이며, 제35류~제45류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상품군이다. 창업 당시, 최승윤 대표는 '오가다'라는 브랜드를 43류(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임시 숙박업)에 상표출원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011년 초,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43류는 2010년 말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오가다란 이름으로 카페사업을 하는 것은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가다'라는 상품에 대한 권리는 따로 있었죠. 그래서 29류(육류, 어류, 건조처리 및 조리된 과일, 야채, 우유 등)와 30류(커피, 차, 코코아, 설탕, 곡분 및 곡물조제품 등)를 등록하려고 봤더니, A사에서 한 달 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 대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분명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하나 대응 해나갔다. A사가 출원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심사기간에 정보제공을 했다. 결국에는 A사가 출원한 내용이 대부분 거절됐다. 최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현재 29류와 30류는 저희가 대부분 확보한 상태예요. 처음엔 억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무지게 챙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명백한 기준을 잘 알고 대처하는 것도 능력인 셈이죠. 상표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체크를 해 보는 것이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수 던질 것**

최승윤 대표는 애당초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가다 1호점을

냈을 때도 '하면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바로 '무한긍정'이에요. 타고난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저의 긍정 에너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에게 도전의식을 고취시켜주기 위해 포럼이나 강연을 나가고 있습니다."

실패를 줄이려면 경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업은 연습이 없다. 최 대표는 창업을 꿈꾸는 20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기위해 청년창업 육성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오가다 매장을 6개월 동안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별도의 투자비용 없이 회사가 오히려 1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오가다 본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친구도 있다.

"청년 창업인들은 부족한 인적 네트워크, 자본금 등 한계점만 찾는 경향이 있는데, 부족한 것에 대해 고민하기 보단 나이와 체력 등 청년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심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이에요. 왜 창업을 해야 하는지, 왜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가다는 지난해 일본 현지기업인 '미야코 홀딩스'의 제안으로 도쿄점을 오픈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요코하마에 매장을 오픈했다. 요코하마점 오픈은 도쿄에 진출한 후 1년 여 간의 운영을 통해 얻은 자심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로써 오가다는 일본 진출을 본격화하게 됐다.

"오가다는 싱가포르 시장 진출을 위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발판 삼아 한국의 우수한 한방차를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동양의 스타벅스와 같은 브랜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해외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나가고 있는 최승윤 대표.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이다. 발명특허



IP Focus  
01

# 오바마 美대통령 때문에 많이 당황하셨나요?





심영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2011년 4월 시작된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미주, 유럽, 일본 등에서 삼성전자가 승리한 전투도 있고 애플이 이긴 전투도 있지만 지루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혹자는 “삼성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는 스티브 잡스의 유언 때문에 양사가 합의하기에는 1~2년 정도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한다.

### 오바마 ‘애플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지난 8월초 “삼성전자가 보유한 표준특허를 애플이 침해했으므로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한다”는 미국 무역위원회(USITC)의 결정에 오바마 미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워낙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에 세간의 관심이 몰려 있던 중, 무역위원회의 수입금지 결정에 대한 26년만의 미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전 세계 IT업체 및 특허업계는 ‘실망’과 ‘열광’의 두 부류로 갈라져 열띤 논란을 벌이고 있다.

당사자인 삼성전자는 실망스럽다고 짧게 발표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에 거부권을 행사한 미 무역대표부의 결정이 삼성전자의 특허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내 언론 및 일부 학계는 더 나아가 미행정부가 자국 기업인 애플을 감싸기 위하여 노골적으로 합법적 판결을 부정하며, 이는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맹비난 중이다. 한편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는 오바마 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미국 특허제도를 불신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미국 IT업체들이 다른 나라에서 특허로 역차별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긴 성명서<sup>1)</sup>를 공식 발표했다.

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과 국의 상반된 견해가 공존할까? 그 이유는 바로 특허는 재산(property),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으로서 당사자들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특허사건이 종결될 때마다 당사자들은 이익을 취하는 자와 손해 보는 자로 갈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의 사건을 분석해보자.

IT업계는 특허풀<sup>2)</sup>에 속한 표준특허에 ‘FRAND’라는 조항을 자주 적용하는데, 이는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약자로서 특허권자들이 자신의 경쟁사에게도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합리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싱을 제공하여 불공정 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성전자는 자신의 특허를 애플이 침해하였으므로 애플이 침해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도록 금지

1) US ITC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없다.

2) <http://www.cciinet.org/index.asp?sid=5&artid=410&evtflg=False>

3) 특허풀(patent pool)이란 다수의 특허 라이선싱을 통한 다수의 특허권자의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결성한 단체를 지칭한다.

처분을 청구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에 FRAND 조항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침해했다고 금지처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특허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sup>4)</sup> 삼성전자는 자신의 표준특허에는 FRAND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년간 EU는 물론 미연방정부의 법무부<sup>5)</sup> 및 연방거래위원회<sup>6)</sup>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표준특허를 FRAND 조항이 적용되는 특허물에 귀속시킨 후 이를 침해했다고 금지처분을 청구하는 행위는 특허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해 왔다. 따라서 작금의 오바마 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FRAND 조항이 적용되는 표준특허 관련 수입금지 결정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공식적 입장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오바마 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삼성전자에게는 '독'일까? 적어도 이번 전투에서는 그렇다. 또한 삼성전자가 추후 미국에서 자신이 보유한 표준특허를 침해한 경쟁업체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청구하거나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분명 잃은 것이 있다.

하지만 오바마 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에 '득'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표준특허를 보유한 에릭슨과 같은 경쟁업체, 인터디지털과 같은 특허관리업체들이 자신들의 표준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제소한 소송이 이미 여러 건 있으며, 이들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패소하더라도 무역위원회가 당해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원천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원고보다는 피고로 더 자주 등장한 삼성전자는 오바마 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얻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4) <http://www.dailytech.com/EU+Investigates+Apple+Samsung+for+Possible+Patent+Misuse/article23199.htm>

5) Department of Justice

6) Federal Trade Commission





### 진화하는 특허 비즈니스

오바마 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수많은 특허침해소송에 시달리는 미국의 컴퓨터, 통신업체들에게도 희소식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왜 오바마 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렬하게 비판하였을까? 그 이유는 CCIA가 미국의 컴퓨터, 통신업체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CCIA는 구글 및 안드로이드 업체가 주회원인 단체 이기에 구글을 위협하는 애플의 손을 들어주는 오바마 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북했던 것이다.

결국 특허를 출원, 등록하고 유지하는 특허권자는 금지권<sup>7)</sup> 획득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제조업체를 특허침해로 제소하는 특허권자도 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금이라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허 침해자 역시 기회비용 산출 결과<sup>8)</sup> 특허권자의 특허를 매입하는 대신 우선 침해한 후, 추후 침해소송에서 패하여 물게 되는 손해배상금보다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특허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특허를 이용한 특허권자의 공격이나 침해자의 수비 모두 수익 창출을 위한 것이기에 특허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수익과 관련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옳다. 이 같이 특허와 수익을 고려하고 특허 관련 사건들을 음미하며 오묘한 특허의 세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특허를 이용한 창조경제의 실천도 한 걸음 더 다가올 것이다. 발명특허

7) 특허권의 속성은 금지권으로서, 특허권자는 타인이 자신의 특허를 실시(make, use, sell or import)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8) Cost-benefit analysis, 결국 합리적 특허전략에는 금지처분, 수입금지, 고의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회피하며 수익창출을 위하여 선도기업의 특허를 침해하는 작전도 포함된다. 특히 기술수명이 짧은 IT 업계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전략이기도 하다.

IP Focus  
02

# 23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디자인보호법, 알고 계십니까?





구현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서기관)

21세기 감성의 시대를 맞아 글로벌 일류 기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 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절차를 도입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여기에서는 1961년 의장법(현 디자인보호법) 제정 이래 가장 많은 내용과 가장 큰 변혁을 담고 있는 개정 디자인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의 주요 핵심적인 내용은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한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관련디자인 제도 도입(안 제35조 등),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100개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의 개선(안 제41조 등),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절차의 도입(안 제9장 신설) 등으로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외에 개정된 디자인 창작수준의 향상을 위한 창작성 요건 강화, 확대된 선출원의 자기출원 예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절차의 개선, 심사관 직권보정제도 도입, 수수료 반환 대상 확대 등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된다.

#### 유사디자인 제도를 관련디자인 제도로 변경

먼저 관련디자인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보면 현재 유사디자인제도는 자기의 선등록 또는 선출원 디자인(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자기의 선행디자인에 의한 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시켜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유사디자인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경우 기본디자인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료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권리범위가 없으므로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권리범위가 기본디자인권에 합체됨으로써 유사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의미가 상실된다.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이러한 유사디자인제도를 폐지하고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관련디자인에 독자적인 권리범위와 존속기간을 부여하는 관련디자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창작자의 디자인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의 개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개선과 관련해 기존 규정은 디자인무심사물품에 한해 20개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밀디자인 청구, 보정각하, 출원공개, 디자인등록결정 및 거절결정을 할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전체에 대해서 청구하거나 심사를 수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대해 개정법은 심사·무심사(개정안은 '무심사'를 '일부심사'로 변경) 물품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물품류(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별표 제4호)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00개까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일부에 대해서도 비밀디자인 청구, 보정각하, 출원공개, 디자인등록결정 및 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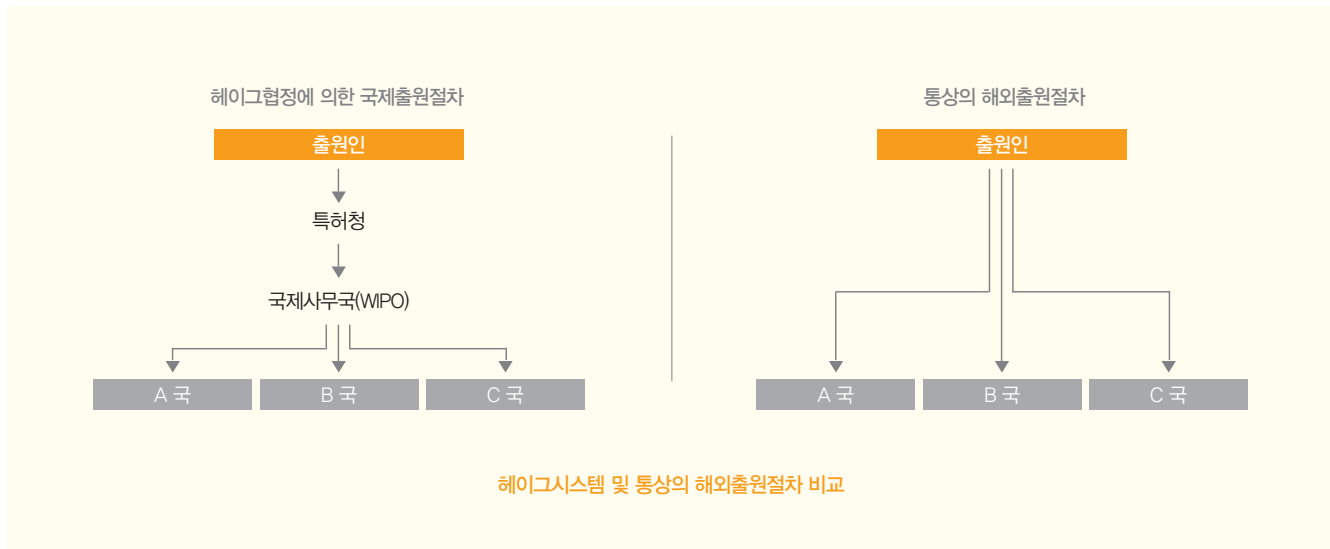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새로이 도입한 바,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출원하는 절차와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에 가입했으므로

동 조약 가입국에 대하여 개별적인 국제출원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출원인이 파리조약에 따라 외국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면 각 국가별로 상이한 방식과 언어에 따라 개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수수료 역시 각 국가별 화폐 및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외국인의 출원시 대리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대리인 선임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출원인이 지정한 복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다자간 조약으로, 파리조약 동맹국 중 디자인의 보호에 관하여 신규성 등 실제심사를 하지 않은 무심사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1925년에 체결한 협정이다. 이후 1934년 런던법 개정<sup>1)</sup>, 1960년 헤이그법 개정<sup>2)</sup>이 이루어졌으며 1999년 제네바법이 제정됐다.

헤이그협정 제네바법<sup>3)</sup>(이하 '헤이그협정')은 심사주의 국가의 가입을 유도하고자 심사주의 국가의 다양한 법제를 수용한 조약으로 2003년에 발효되었다. 2013년 2월 현재 스위스, 유럽연합<sup>4)</sup>, 싱가포르 등 45개 체약당사자<sup>5)</sup>가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국가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으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sup>6)</sup>이다.



1) 1934년의 런던법은 디자인의 보호에 대하여 저작권법 접근방식이 지배적이었고 국제사무국에 디자인을 기탁하면 즉시 지정국에서 권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디자인권자의 일방적인 선언임  
 2) 1960년의 헤이그법은 디자인의 보호를 저작권법 접근방식에서 특허적 접근방식으로 변화시킨 것이 특징이며, 국제사무국의 기탁에 따라 지정국에서 출원절차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지만 등록은 지정국의 신규성 등 실제심사를 통하여 국내법에서 인정하고 있음  
 3) (정식명칭)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 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4) 유럽 국가들의 공동 경제·사회·안보 정책의 실행을 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회원국은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27개국임(2013.2)  
 5) 참고자료 3. 참조  
 6) 미국은 의회가 헤이그협정 가입에 동의(2007년)하고 이행법안을 승인(2012년)한 후, 대통령이 서명(2012)했으며, 일본도 헤이그협정 가입을 결정하고 이행법안을 마련하고 있어 2015년 중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가입을 적극 고려 중임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은 하나의 국제출원서에 복수의 나라를 지정하여 하나의 언어로 WIPO 국제사무국에 출원하면 되므로 개별 국가마다 출원하는 번거로움과 국가별로 상이한 언어와 절차 등에서 비롯되는 복잡성을 피할 수 있는 간편하고 손쉬운 국제디자인 출원제도<sup>7)</sup>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한다면 복수의 개별 국가에 각각 출원하는 것보다 수수료<sup>8)</sup> 및 대리인 비용<sup>9)</sup>이 크게 절감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WIPO 국제사무국에 등록된 권리는 국제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디자인권의 사후 관리도 용이하다. 예를 들어, 명의 변경이나 권리자의 주소 변경 등의 변동사항은 국제사무국에만 통보 하면 모든 지정국에 일괄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권리의 갱신도 갱신수수를 국제사무국에 일괄납 부하면 지정국의 디자인권이 한 번에 갱신되므로 해외 디자인권의 등록관리에도 매우 효율적이다.

헤이그협정 가입에 대한 국내업계의 의견<sup>10)</sup>은 가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6.3%로 반대 의견 25.5%보다 훨씬 높게 나왔으며, 찬성이유는 대부분은 디자인 제품의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에서 디자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헤이그협정에 따른 새로운 국제출원제도 도입의 유용성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디자인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에 헤이그협정 가입 승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통과 시키고, 내년 상반기 중 협정 가입서를 기탁하여 2014년 7월 1일자로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명특허

7) 지식재산권 중 특허는 1984년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하여 국제특허출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상표는 2003년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하여 국제상표출원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특허와 상표분야에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해외에서의 권리획득 및 보호를 위한 국제출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디자인 분야에서는 아직도 국제출원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8) 개별국 출원과 헤이그 국제출원 수수료 비교(출원료 및 최초 5년간 권리유지비용 기준)

구 분	개별국 직접출원				합계(A)	헤이그 국제출원 (B)	국제출원 이익 (A-B)
	한국	OHIM(유럽)	스위스	싱가포르			
각국통화	380,000	€ 525	CHF 320	SGD 720	€ 525+CHF 320+SGD 720+380천원	CHF 984	-
원 화	380,000	781,263	396,384	661,082	2,218,729	1,218,881	999,848

\* 환율(1€=1488.12, 1CHF=1238.7 1SGD=918.17, '12. 6. 기준), 무심사, 디자인수2, 전자출원, 도면10개 기준

9) 개별국 해외출원시 대리인비용 현황(예시)

구 분	개별국 직접출원				합계	헤이그 출원
	OHIM(유럽)	스위스	싱가포르			
대리인 선임비용	\$ 700	\$ 1,100	\$ 800	\$ 2,600	-	
원 화	767,340	1,205,820	876,960	2,850,120	-	

\* 환율(1\$=1096.20, 2013. 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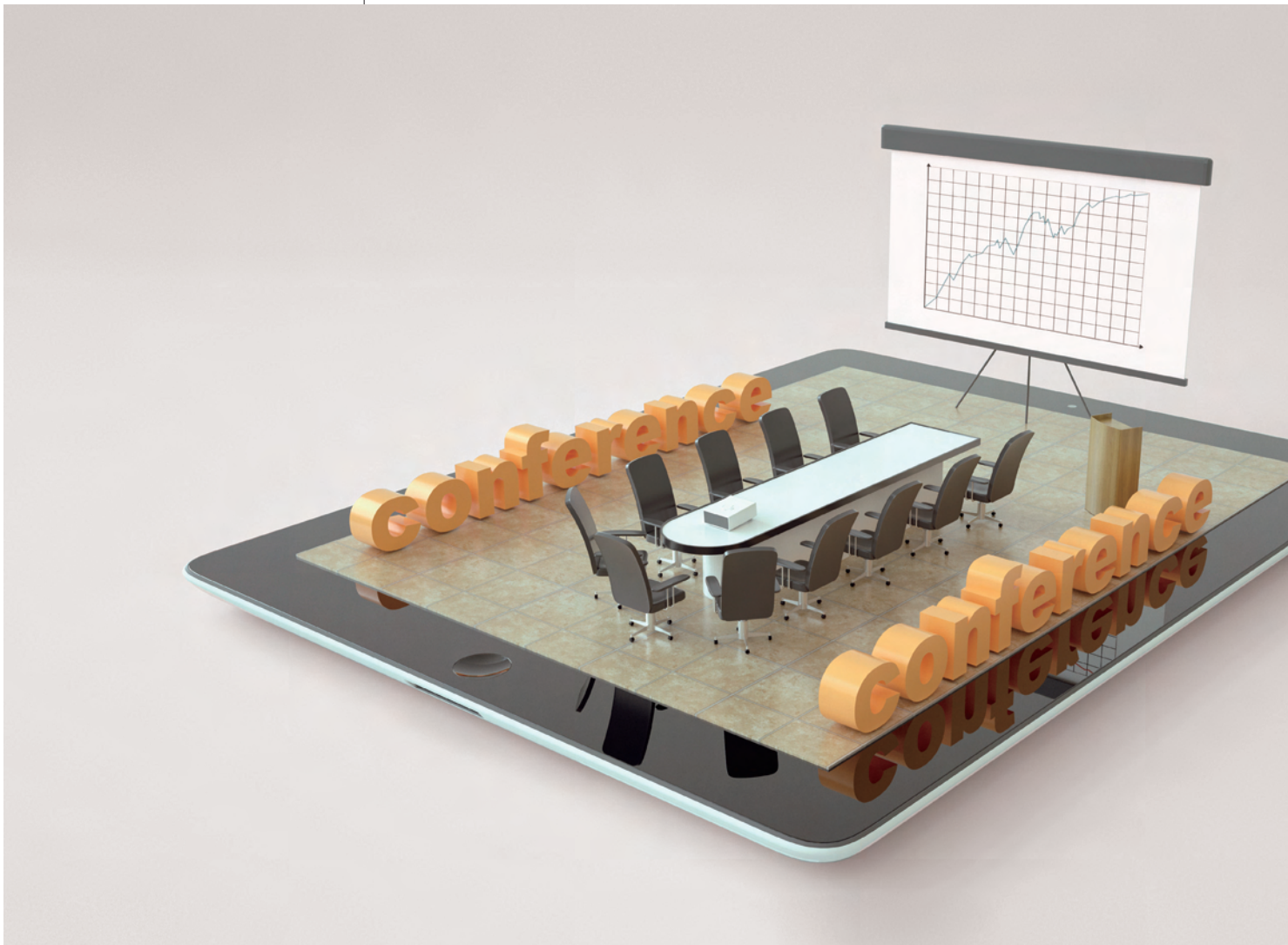
\* 개별국가에 외국인이 출원시 반드시 현지대리인 선임이 필요하지만 헤이그 국제출원시에는 대리인선임이 필요 없음. 다만, 지정국에서 거절이유통지가 있는 경우 대리인선임이 필요함

10) 2008년 8월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문조사 결과

- 다출원 개인·기업 및 대리인사무소 1,000명 대상으로 실시, 620명 답변

IP Focus  
03

# 한·중·일 협력의 시대 지식재산권이 핵심이다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산 정약옹은 '수오재기(守吾齋記)'라는 글에서,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탐구했다. 즉, 눈에 보이는 논, 밭, 책들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이자 본질인 것이다. 하지만 '나'처럼 천하에 잃기 쉬운 것이 없다고 보았다. 유독 이른바 '나'처럼 그 성질이 달아나기 쉬운 것이 없는 것이다. 이를 국가 차원으로 확대시켰을 때, '나'에 해당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이다. 그것은 국가의 정신적, 기술적 자산의 총체이며, 반드시 치밀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소홀히 하거나 빼앗기기 쉬운 속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다.



### 패러다임의 전환, 미래경제는 '지식재산'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sup>1)</sup>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sup>2)</sup>.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백년지대계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은 세계적인 사건이 되었고, 세간에는 특허권과 저작권 관련 문제들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와 함께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해외 매출을 수출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sup>3)</sup>. 한편, 미국의 경우 이미 GDP 중 수출 부분의 상당부분을 로열티와 라이선스 비용이 차지하고 있으며, GDP에 지식재산권 관련 투자 부문도 포함시켰다<sup>4)</sup>.

한편, 한국, 중국 및 일본은 상호 무역의 증진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이 이뤄졌다. 한·중·일 FTA가 타결되는 경우에는 전 세계 3위의 지역 통합시장으로 부상하게 되며 우리나라의 실질 GDP, 수출입 및 국민들의 후생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5)</sup>.

1)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

2)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3호

3) 한국수출입은행, 보도자료, 2013.8.8.

4) Bureau of Economic Analysis <<http://www.bea.gov/>>

5)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중·일 FTA 체결계획', 2012.11, 2면



일본 큐슈에 라이선스 비용을 받고 수출됐었던 제주도의 올레길

이러한 한·중·일 3국의 협력적 분위기 속에서, 산업 발전의 매개체가 자 핵심은 무엇보다 지식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중국 및 일본에서 지식재산권은 미래경제의 패러다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중·일 3국은 지식재산을 국가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법률을 제정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한국의 경우 지식재산위원회)을 마련했으며 매년 지식재산 관련 전략을 세워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즉, 지식재산은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산으로 점차 취급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 창조경제가 핵심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 ICT의 결합을 모토로 내세우는 창조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이야말로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또한 국가차원에서 증진되어야 할 분야인 것이다.

**한·중·일 지식재산공동체 협력 강화해야**

이런 배경 하에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3국은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관련 협력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공유했다<sup>6)</sup>. 예를 들어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전자제품에서부터 자동차, 선박, 굴삭기 등은 반드시 지식재산권과 결부되어 있고, 온라인 게임, 오피스 프로그램 등은 신식식 재산으로서 각국에 수출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의 올레길이 큐슈에

라이선스 비용을 받고 수출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창작과 활용에 수반하여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만날 수 있는 법적 위험들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배경에서 한국, 중국 및 일본의 3국간의 무역에 있어서도 지식재산에 관한 논의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분야인 것이다. 그동안 3국의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관련 법률은 상호 영향을 주면서 발전해 왔지만 각국의 특성이 반영된 산업재산권의 심사기준, 권리 침해에 대한 집행 규정 및 권리 보호의 체계 등에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각국에서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나 교육수준도 각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의 집행상 행정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증진,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관련 협력과 정보 및 인적 교류 강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의식 강화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이와 관련하여 3국이 지식재산권의 집행법규(특히 디지털 분야의 위조 및 표절 근절)를 강화하고 대화를 통해 협력하는 것에 공감했다<sup>7)</sup>. 이러한 3국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하게 다뤘으면 한다. 특히 3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민간에서의 학술교류를 통한 연구의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국제 학술 교류에 대한

지원, 홍보 및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고 이런 학술적 논의를 토대로 자유무역협정에서 3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아 넘어 세계 지식재산 허브 국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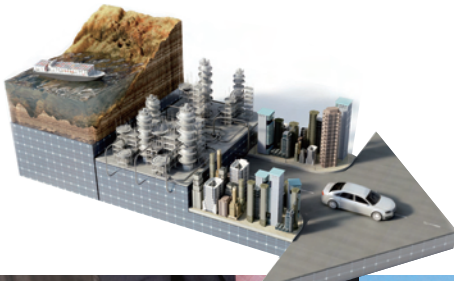
한국, 일본 및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는 이러한 지리적 장애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각국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방지와 권리의 보호는 3국의 협력 속에서 더욱 공고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들 3국은 아시아에서 어느 국가보다 지식재산의 창출과 소비가 많은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식재산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한 교류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의 특허청장들이 상호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와 같이 한중일 3국의 학계와 산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학술교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동 학회는 2012년에 일본지재학회, 중국지식재산권 연구회와 학술협력협정을 맺고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은 한·중·일 FTA 외에도 중국 및 일본과 개별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위한 당위적인 선택인 것이다. 이 협상이 우리나라에 이로울 수 있도록 철저한 제반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함은 말할 것도 없다. 새로운 무역패러다임에 대응하는 국가와 민간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중심이자 진정한 아시아 무역의 허브로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발명특허

6)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앞의 보고서, 29면

7)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앞의 보고서, 29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주요내용, 2012.3, 5면



IP Focus  
04

# 정부 3.0시대가 요구하는 개방형 공공서비스 KIPRIS<sup>Plus</sup>

우리나라가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 일컫는 OECD에 가입한 1994년, 서유럽 4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온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아직도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정보에 대해서 미흡함이 느껴진다”며, 관계부처 장관과 관련 인사들에게 대책을 주문했다. 산업재산권 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심사처리 지연과 공보발간 비용증가 등의 문제점이 부각된 시점이었다. 게다가 방대한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보관이나 관리 등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면서 산업재산권 정보데이터 보급의 필요성은 강도 높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 특허 빅데이터 시대, 선진화된 지식재산 DB구축 필요

OECD 가입 당시,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정보에 대해 체계적인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기술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특허행정 전산화 7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995년 특허기술정보센터(한국특허정보원의 전신)를 설립했다. 특허기술정보센터는 1996년 7월 1일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클라이언트서버(CS) 환경의 ‘KIPRIS ; 특허기술정보 온라인 상용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서지사항과 행정정보가 서비스 되었으며, 특허심판에 관한 판결문도 서비스 범위에 포함됐다. 공보책자를 뒤적이던 방식에서 컴퓨터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98년 사회적으로 인터넷 붐이 급속하게 일기 시작하면서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 기반의 KIPRIS에도 인터넷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는 9개월간 총 6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KIPRIS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1998년 9월 본격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했다. 기존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을 웹 방식으로 전환하여 접속의 편리성과 데이터의 정확도, 검색속도와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를 토대로 1947년 이후 모든 국내 산업재산권 정보 2백20만 건과 1975년 이후 미국, 일본, 유럽의 특허정보 7백50만 건 등 총 3천2백70만 건의 방대한 특허정보를 탑재하여 서비스했다.





표재호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특허기술정보 온라인 상용서비스 KIPRIS 홈페이지

### KIPRIS 인터넷 서비스 무료화로 특허정보 대중화 선도

한편, 해외 선진국들은 특허기술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지식재산권 정보망을 발 빠르게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일본·유럽특허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산업재산권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WIPO-Net 구축을 통한 세계특허정보 공유프로젝트, APEC의 인터넷지식재산 정보광장 등을 구축했다. 지식재산권 정보의 공유는 21세기 국가 기초경쟁력 배양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국내 산업재산권 정보이용 저변 활성화를 위해 2000년 1월 KIPRIS 인터넷 서비스는 무료화로 전환됐다. 서비스의 무료화 이후 이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무료화 이후인 2000년 7월 실시한 'KIPRIS 이용자 조사분석'에 따르면 무료화 이전인 1999년 말에 비해 이용자가 약 28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무료화 이전에는 기업, 연구소 등이 이용자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무료화 이후 개인 이용자는 무려 97배나 늘어났다. 2000년대 들어 급속한 기술발전예 따라 산업재산권 정보의 범국민적·사회적 관심이 널리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KIPRIS의 폭발적인 이용 증가에 따라 신속하고 완벽한 서비스를 위한 KIPRIS 검색시스템 운영 종합개선 계획이 수립됐다. 2013년 현재까지 KIPRIS 검색 고도화작업은 이용자 편의 향상 및 정확하고 신속한 데이터 탑재, 쉽고 편리한 검색 및 다양한 부가기능 등 7차례에 걸쳐 개선되어, 현재 국내 최고의 지식재산정보 검색시스템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 개방형 지식재산권 정보공유시스템 KIPRIS<sup>Plus</sup>

최근 정부3.0 계획이 발표된 이후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확대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공정보의 빅데이터 시대가 열리면서 지식재산정보에 대한 개방 확대 계획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정보 검색시스템은 개방·공유 확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특허청의 최신 특허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Open API 기반의 특허정보 웹서비스(KIPRIS<sup>Plus</sup>)가 그것. KIPRIS<sup>Plus</sup>는 특허청에서 공개되어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지식재산권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업, 연구기관, 정보서비스업체 등이 자체 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정보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기업, 연구기관, 정보서비스업체 등 서비스 이용자는

최신 특허정보 데이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입수하게 되어 대학, 연구소 등에 신속·정확하게 기술이전 수요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없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색인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KIPRIS<sup>Plus</sup>는 특허청 심사관이 활용하는 것과 동일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특허공보·심판 및 행정정보(행정처리, 등록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공보 발간 후 데이터 변경 및 신규 데이터 탑재의 실시간으로 조화가 가능하다. 현재 약 241백만 건의 국내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정보는 물론, 해외 특허, 권리자변동정보 등의 지식재산권 정보가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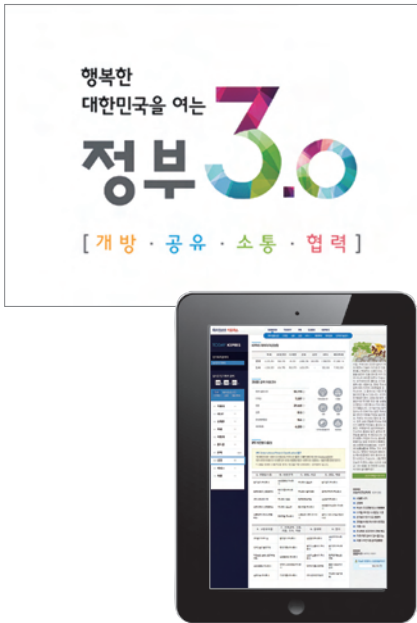
또한 개발 및 운영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스템 환경에서도 이용 가능한 표준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지식재산권 정보를 세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 자체 정보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KIPRIS<sup>Plus</sup> 이용건수는 181백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2012년부터 등록정보, 인용문헌, 한국특허영문초록(KPA) 등의 정보가 새롭게 제공되면서 이용 건수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KIPRIS<sup>Plus</sup>는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연구재단, 서울대학교, 위즈도메인 등 19여 개의 연구소, 학계, 공공기관 등이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KIPRIS<sup>Plus</sup>를 활용하고 있는 리엔목특허법인 관계자는 KIPRIS<sup>Plus</sup>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특허 건에 대한 등록정보를 조사해야 하나, 데이터가 부정확하여 특허청 '특허로 웹 서비스'를 통해 등록원부를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 작업 또한 보안인증으로 작업 시간이 지연되어 불편했다"며, "KIPRIS<sup>Plus</sup> 도입 이후 등록정보 데이터의 자동 검증이 가능해져 업무 프로세스가 단축되었고, 직접 검증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아졌으며 간편하게 권리변동내역을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연차로 납부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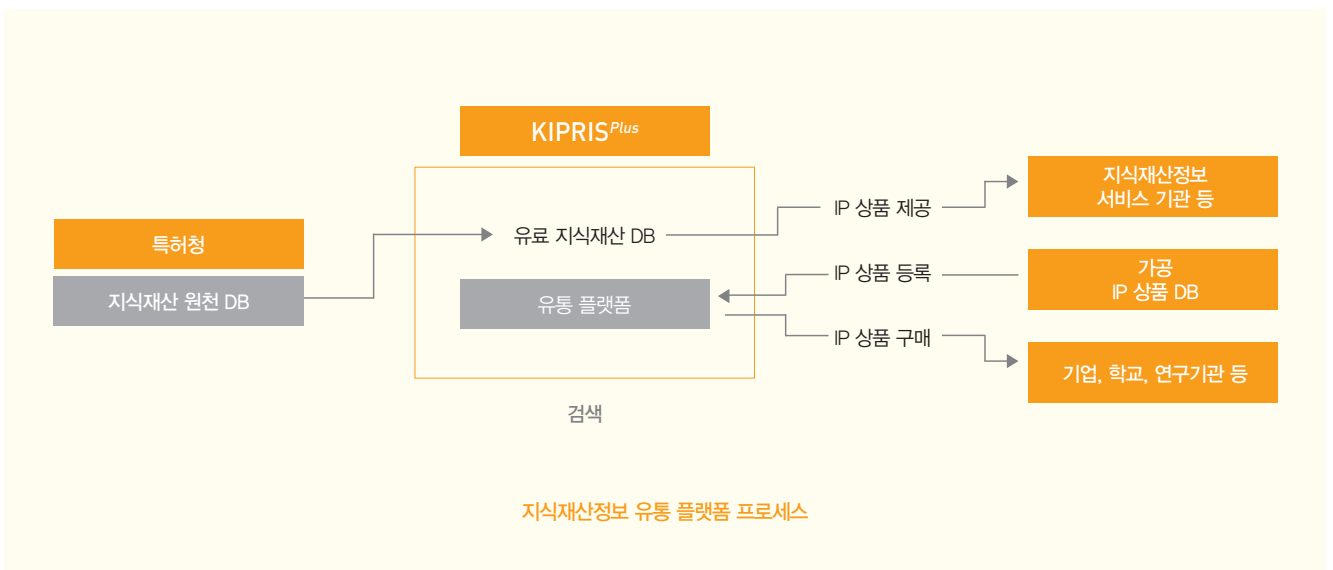
IT 솔루션 개발업체인 아르고넷은 KIPRIS<sup>Plus</sup>를 통해 입수한 최신 특허정보를 아르고넷 자체 DB에 저장해, 대학, 연구소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위한 수요기업 검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기관 또는 대학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최신 기술개발 동향 수집을 위한 최신 특허데이터가 필요했으나 고가의 비용이 불가피했다. 아르고넷은 KIPRIS<sup>Plus</sup> 도입 이후 최신 특허정보 데이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입수하게 되어 대학, 연구소 등에 신속 · 정확하게 기술이전 수요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 ‘지식재산정보 유통 플랫폼’ 구축

지식재산 정부3.0시대에서 KIPRIS<sup>Plus</sup>는 지식재산정보 개방 · 공유의 아이콘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2014년까지 KIPRIS<sup>Plus</sup>를 토대로 민간 · 공공의 IP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유 ·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정보 유통 플랫폼’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의 고부가가치 IP정보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KIPRIS<sup>Plus</sup> 자원을 활용한 유통플랫폼을 구축하여 특허정보 보급 활용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KIPRIS<sup>Plus</sup>기능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성능 개선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KIPRIS<sup>Plus</sup>는 지식재산 관련 업계의 부가가치 창출, 지식재산 업계 확대 · 발전을 향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정부3.0시대가 요구하는 개방형 공공서비스로서 더욱 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명특허





**USA**  
**미국 인터넷광고협의회 등,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한 모범관행  
 설정에 합의**

출처 : [www.mondaq.com](http://www.mondaq.com)

지난 8월 18일, 인터넷광고협의회(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 IAB)\* 및 광고 네트워크(Media, Adtegrity)\*\*, 대형 인터넷·출판 기업(Google, Yahoo, Microsoft, AOL)은 저작권 침해에 관련되거나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들의 광고를 제거하기 위한 모범관행(best practices) 설정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다.

합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의 확산을 저지하고 해당 웹사이트들의 수익 창출을 막는 것을 목표로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 및 위조 상품과 '주로 연관된' 것으로 여겨지는 웹사이트를 광고 네트워크에 신고하면 광고 네트워크는 조사에 착수한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 ① 해당 웹사이트에 대해 침해행위 중단 요청
- ② 침해혐의를 받고 있는 행위가 웹사이트에서 제거되거나 또는 궁극적으로 모든 광고 네트워크에서 당해 웹사이트를 제거하기까지 해당 광고에 대한 금지명령(embargo)
- ③ 강제성은 없으나, 광고 네트워크는 웹사이트 소유자가 제출하는 증거(위조 상품 또는 저작권 침해와 주로 관련되지 않았다는 등)를 검토할 수 있음

동 합의에 참여한 기관들은 인터넷 대형 포털의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부담이 다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광고 네트워크에서 실시하는 조사의 질과 대응조치의 효용성이 합의를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USA

## 미국 Microsoft, Nokia와 휴대전화 사업 인수 및 통상실시권 설정에 합의

출처 : www.washingtonpost.com



Japan

## 일본 IP Bridge, 지식재산 펀드를 이용하여 전기전자 기업의 휴면 특허 매입 실시

출처 : www.nikkan.co.jp

\*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업계 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수행 및 온라인 광고업계에 대한 법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광고 사업자 단체로, AP 통신, BBC, CBS, 이베이, ESPN,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뉴욕 타임즈, 로이터, 트위터, 버라이즌, 워싱턴 포스트, 야후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광고 인벤토리를 가지 있는 구분으로 물량을 취합하여 마진을 붙여 재판매하는 사업으로 소비자의 생활패턴과 연계해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임. 쉽게 말해, 인터넷상의 각 사이트에 산재되어 있는 온라인 광고 영역을 선별해 하나로 묶고 정확한 타겟팅으로 광고를 전송함으로써 광고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서비스로 미국, 일본 등 선진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는 이미 널리 활성화되어 있음.

지난 9월 3일, Microsoft는 Nokia의 휴대전화 사업을 7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는 Microsoft가 Nokia의 특허권에 대하여 10년간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계약도 포함되어 있다. 동 합의와 관련하여 Nokia가 특허괴물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가치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 보유 : Nokia는 Microsoft에 휴대전화 사업 부문을 매각한 후에도 여전히 일부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Nokia가 보유하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는 특허 포트폴리오가 거론되고 있음
- ②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 : Microsoft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기업들에게도 실시료를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③ 보복소송의 위험으로부터 회피 : 특허괴물의 비즈니스 모델은 경쟁업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동안 경쟁업체들의 보복적 소송을 두려워하여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못했던 Nokia는 휴대전화 사업을 매각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그러나 Nokia가 보다 많은 실시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공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며 Nokia는 언론사들의 입장 표명 요청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일본 IP Bridge\*는 지식재산 펀드\*\*를 이용하여 일본 전기전자 기업의 휴면 특허를 매입한 뒤, 이를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Panasonic 등과 같은 일본의 전기전자 기업은 1980~90년대에 많은 연구 개발 투자를 실시하여 방대한 특허를 축적해왔다. 하지만 최근 실적 부진으로 인해 보유 자산 매각, 특허 및 연구 개발자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IP Bridge는 일본의 전기전자 기업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허를 매입한 뒤, 민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신산업 창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IP Bridge는 2013년 7월에 회사가 설립된 이후 많은 전기전자 기업들이 특허를 판매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업은 Panasonic 등이 제공한 특허를 중심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일본 산업혁신기구는 지난 7월, 일본 기업이 보유한 휴면 특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IP Bridge를 설립하여 설립 자금으로 9천만 엔을 출자하고, 동 회사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 펀드 운영 자금으로 약 28억 엔을 출자함. 그 밖에 Panasonic, 미츠비시 물산 등이 지식재산 펀드 운영 자금을 출자함.

China

중국 텐진시 검찰청,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단속을 위한 검찰의  
노력 소개

출처 : www.nipso.cn

\*\* IP Bridge는 지식재산 펀드를 운영하며, 펀드로 조성된 자금으로 일본 기업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허를 매입하여 이를 신흥국 및 중소기업에 대여해주는 사업을 실시함.

지난 8월 17일, 중국 텐진시 검찰청은 지식재산권의 형사적 보호를 위해 사건 해결의 전문성 강화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텐진시 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 63건을 적발하여 용의자 86건을 체포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9건을 적발하여 피의자 15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텐진시 검찰청이 수행한 4대 주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❶ 전문적 사건 처리 :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만을 담당하는 독립적 기관 및 사건 처리반을 구성하여 신속·정확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함
- ❷ 관리·감독 강화 :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위조 의약품 제조·판매 및 저작권 침해 사건들을 신속하게 해결함
- ❸ 심층 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의 예방을 위해 텐진시 소재 기업들에게 법률 강의를 제공하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함
- ❹ 공안기관과의 협력 :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텐진시 검찰청과 공안이 협력하여 연석회의 개최, 사건의 이송에 관한 논의, 주요 사건의 통보 제도를 구축함. 또한 텐진시 검찰청과 공안국 등은 지난 2013년 5월에 「공상 행정·법집행과 형사 사법의 업무 협조 강화에 문체에 대한 의견을 공동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곤충 눈의 생물학적  
특징을 응용한  
「인공 겹눈」 개발

출처 : www.europa.eu


지난 8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위스, 독일 프랑스 과학자들이 곤충 눈의 생물학적 특징을 응용하여 파노라마 모션 감지 기술인 「인공 겹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발은 「CURVACE 프로젝트」\*\*\*를 통해 이뤄졌으며 모바일 로봇, 스마트 의류 및 의료 애플리케이션에서 높은 산업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소형 곤충 눈을 개발하기 위해서 EU 자금에서 2백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파노라마 모션 감지 기술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❶ 자동차의 장애물 감지 : 주차 동작 도중 자동 차량 안내를 위해, 또는 가까이 있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감지를 위해서 자동차 주위에 유연한 인공 겹눈 부착하여 장애물 감지
- ❷ 항공기의 착륙 또는 구조 작업 : 영상-기반 충돌-방지 항법을 위해서 유연한 인공 겹눈을 초소형 무인 항공기 등에서 설치하여 지형 등을 감지
- ❸ 시각 장애인 충돌 경고 시스템 : 낮은 두께와 유연성이 특징인 곤충 겹눈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충돌 경고 시스템이 적용된 스마트 모자, 스마트 옷 등에 활용
- ❹ 모션 감지 : 모션 감지를 위해서 지능형 주택의 벽과 가구에 부착하여 노약자의 행동을 감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통합 관련 조약 수호, 유럽연합 정책 입안, 유럽연합 회원국 감독 등을 수행하는 유럽연합의 행정부임.

 New Zealand  
**뉴질랜드 의회,  
 소프트웨어 특허  
 금지하기로 결정**

출처 : [www.arstechnica.com](http://www.arstechnica.com)

\*\* 인공 겹눈은 Drosophila 초파리와 기타 절지동물들의 눈과 유사한 기능 및 특성을 특징으로 함. 겹눈(직경 12.8 mm, 1.75 그램)은 630개의 눈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각의 날눈은 1개의 렌즈(172 microns)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 화소(30 microns)로 결합되어 있음.

\*\*\* 동 프로젝트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의 FET 오픈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제공받아 45개월(2009년 10월 1일~2013년 6월 30일)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EPFL(스위스), Aix-Marseille 대학(프랑스), CNRS(프랑스), Fraunhofer연구소(독일), Tübingen 대학(독일) 5개 기관이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함.

지난 8월 28일, 뉴질랜드 의회는 5년간의 논의 끝에 소프트웨어 특허를 금지하는 특허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7표 대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동 법안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인정 여부가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존하는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포함하지 않고는 완벽하게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되어 있다.\*\*

동 법안의 관련 조항\*\*\*은 소프트웨어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구\*\*\*\*를 명시하였으며, 일부에서는 동 조항이 TRIPS 지식재산협정의 문구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특허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나, 특허 등록이 가능한 공정을 시행하는 방법에 관한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특허 등록될 수 있다. 또한 개선된 하드웨어와 결합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등록 가능하다.\*\*\*\*\*

한편, 뉴질랜드 IT전문가협회(New Zealand's Institute of IT Professionals)의 Paul Matthews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를 축하하며 뉴질랜드에서 드디어 소프트웨어 특허가 금지되었다고 언급했다.

\* 뉴질랜드 상무부 장관이 WTO 협정과 충돌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한 수정을 제안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됨.

\*\* 특허법 개정안에 앞서 이루어진 토론회에서 소프트웨어는 발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남.

\*\*\* (특허의 예외) 인간 대상으로 하는 생물학적 과정,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수술이나 치료에 의한 인간 치료 방법,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 방법, 식물 신품종, 유기체,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됨.

\*\*\*\* TRIPS 협정은 기술 분야의 제품 또는 공정에 관한 모든 발명에 특허가 부여된다고 규정함.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개선된 세탁기를 예로 제시함.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세탁기가 개선된 방법으로 작동하여 의류를 더 깨끗하게 세탁하고 전력을 절약한다면 특허 등록 가능함.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 꿈을 현실로 만드는 작업, 창의적 아이디어 모두 모여라

## 사업화지원팀

이제는 지식재산도 금융자산이다.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은 지식재산 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적극적인 지식재산 창출 전략의 수립 및 실행, 확보한 지식재산의 보호 및 체계적 관리, 적극적인 IP자산의 활용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의 의미 있는 행보를 따라가보자.





Decided  
Like No.1!



###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 마련

선도형 산업발전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인 강력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생태계란 생물이 살아가는 세계, 즉 강력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지식재산이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제도적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더불어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낸다는 뜻이다.

1996년에 처음 조직된 사업화지원팀은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팀의 수장인 김용규 팀장은 "주요국들은 이미 경제발전과 함께 지식재산 생태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팀도 이러한 시국에 맞춰 지식재산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 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사업화지원팀의 주요 사업에는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일반 특허기술평가 지원,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등이 있다.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디자인, 제품 설계 및 제작, 제품 혁신, 경영전략 지원 등을 각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제고하는 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이다. 이를 관리하고 있는 임응수 계장은 "2012년 9.11점의 높은 수혜기업 만족도를 보인 사업으로써, IP경영전략 매뉴얼 보급 및 IP활용전략 컨퍼런스 개최

등으로 중소기업 IP경영의 기반을 조성했으며, IP서비스 업계에 IP활용전략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시장 창출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은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한다. 이 사업의 관리자인 전윤정 계장은 "평가 지원을 통해 기술 거래의 활성화, 현물출자용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기술인증, 자금 조달, 마케팅 측면 등 기술력 중심의 영세발명가 및 중소기업의 IP활용 극대화, IP 거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등을 기반으로 금융권의 보증·투자·담보대출 등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기술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6년부터 작년까지, 69억 원의 평가비용지원을 통한 1,377개 기업에 2,740억 원 보증서를 발급했으며, 특허평가비용 지원예산 대비 약 40배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효과를 달성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사업화 추진 시 자금난을 해소시켜줌으로써 기업이 성장하는데 있어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무한상상실 운영

지난 8월 23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 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무한상상실 청년아이디어클럽' 개소식이 한국 지식재산센터에서 열렸다.

무한상상실 청년아이디어클럽은 사업화지원팀이 전반적인 기획 및 시범 운영 등을 통해 구축한 대표모델로,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고도화시켜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 및 창업과 연계함으로써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백상운 과장대리는 "상상·도전·창업을 촉진하는 창조·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화지원팀이 전면에 나서 활동하고 있다"며 "9월 30일까지 아이디어를 접수한 후 아이디어 활동, 전문가 멘토링 등의 교육을 통해 아이디어 권리화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밖에도 사업화지원팀은 IP금융 대상이 될 수 있는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담보로서 가치가 있는 IP를 보유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시범사업으로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컨설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발명진흥회가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IP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투자 및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답'이 아닌 '길'을 제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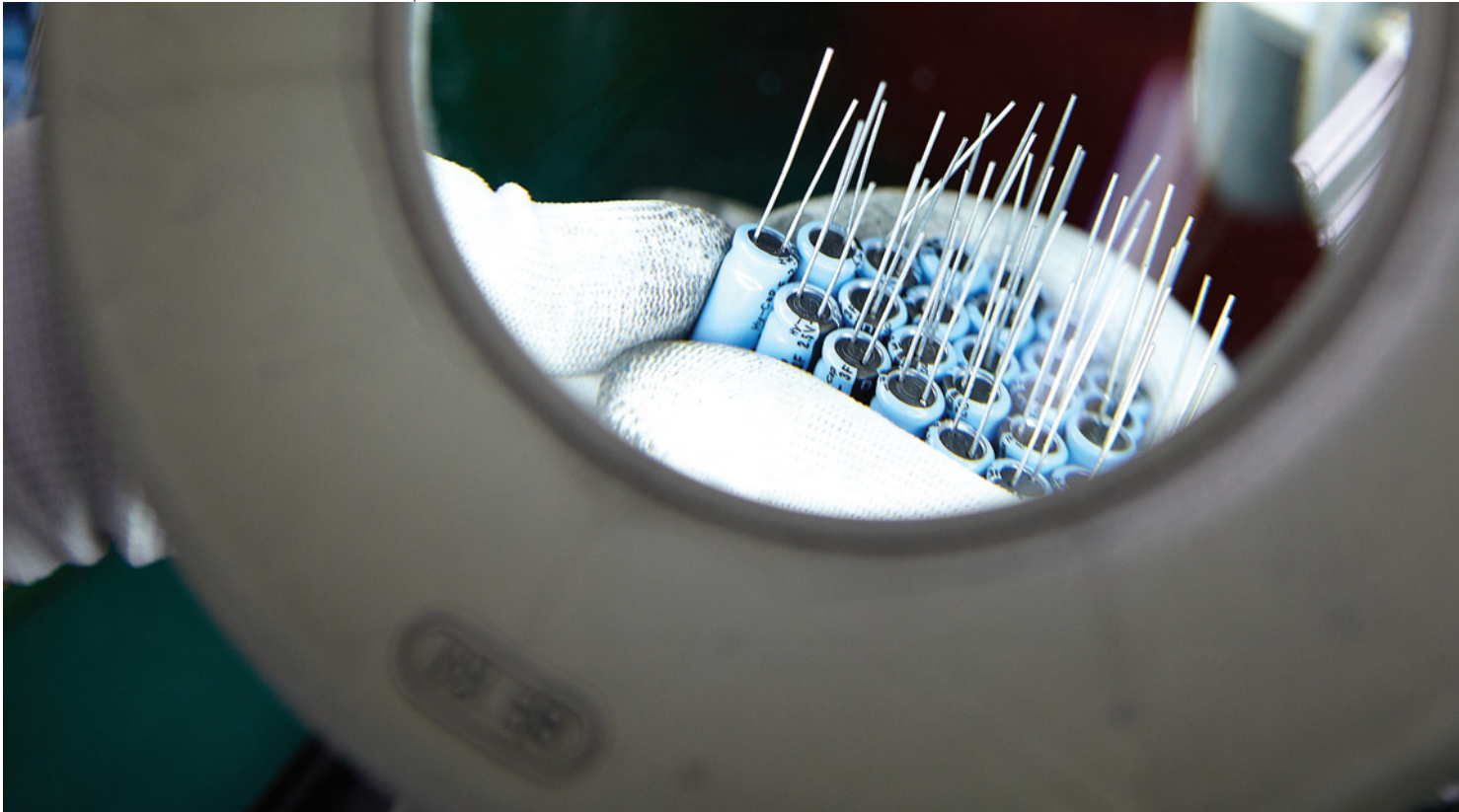
창조경제의 성패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산물인 지식재산권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화지원팀은 다음의 3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2006년부터 시작한 보증 중심의 지식재산 금융을 투자와 대출로 확대하여 초기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선다. 둘째, 무한상상실 시범운영을 통해 아이디어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 출원 및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의 표준모델을 정립한다. 셋째, 지식재산 활용전략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물론 제품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김용규 팀장은 "우리 팀원들이 각자 맡은 바 담당업무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됨과 동시에 자기 자신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지성과 능력을 부활시키고 끌어내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긍정적인 사고방식, 원활한 소통 능력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매일 조금씩 이와 같은 필요를 채워가는 자기 성장발전의 직장생활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듯이 기업도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풀어야 한다. 사업화지원팀은 앞으로도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도전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발명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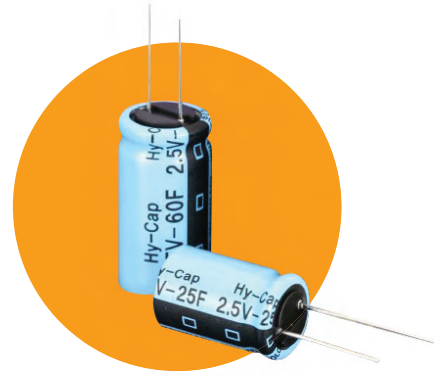
“우리 팀원들이  
각자 맡은 바 담당업무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됨과 동시에  
자기 자신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지성과 능력을  
부활시키고 끌어내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었으면 한다”





# 앞선 기술력으로 미래를 선점하는 기업

## + 비나텍(주)



전북 전주에 자리 잡고 있는 비나텍은 친환경에너지 저장장치인 3V 초고용량 커패시터(Super Capacitor)를 개발해 해외 각국에 수출, 녹색도시 실천과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매년 매출액 대비 7% 정도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으며, 총 147건의 특허를 출원,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커패시터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다

1999년 법인설립 후 꾸준히 성장해온 비나텍은 활성탄소를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저장장치인 초고용량 커패시터 전문제조 기업이다. 창업초기에는 Tantalum 커패시터를 중심으로 하는 유통회사였지만, 2004년부터 초고용량 커패시터 제조분야로 사업을 확대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본사와 공장을 전주 친환경복합단지로 이전하면서 그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초고용량 커패시터를 연구·개발·사업화하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약 60개이며, 이 중 매출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기업은 약 40개이다. 비나텍의 경우 3.0V 초고용량 커패시터 양산에 성공했으며, Slim Chip형 초고용량 커패시터의 개발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비나텍의 성도경 대표는 "생산제품인 초고용량 커패시터는 활성탄 표면에 전하의 물리적 흡·탈착으로 에너지를 충전 또는 방전하는 원리로, 순간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저장한 후 높은 전류를 순간적 혹은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고효율 에너지 저장장치"라며, 이는 "태양열 발전소, 하이브리드 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저장소자로 미래에너지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나텍은 미국 모하비사막 태양열 발전시스템 구축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스라엘 태양광기업이 주도하는 있는데 이 사업에 비나텍은 발전용 연료전지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매년 1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는 생산능력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주공장의 건설 및 설비구축에 170억 원을 투자했으며, 120억 원 가량의 추가투자를 집행 중입니다. 투자가 완료되어 설비가 본격 가동되면 현재 연간 330억 개인 생산규모가 600억 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01. 현재 비나텍은 이스라엘 태양광기업이 주도하는 미국 모하비사막 태양열 발전시스템 구축작업에 참여, 발전용 연료전지를 공급하고 있다. 02. 성도경 대표는 직원의 자기개발을 위해 독서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학자금 무상지원, 마라톤, 소통의 날 등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03. 배터리보다 광범위한 온도에서도 작동돼 신뢰성이 높고, 수명이 길어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이다.

생산능력 확대와 자체 개발 공정시스템으로 비나텍은 타사와 비교해 제품 가격경쟁력을 갖췄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업체를 제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했다고 자부하는 이유다. 이를 바탕으로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 연구와 개발로 일군 기업 자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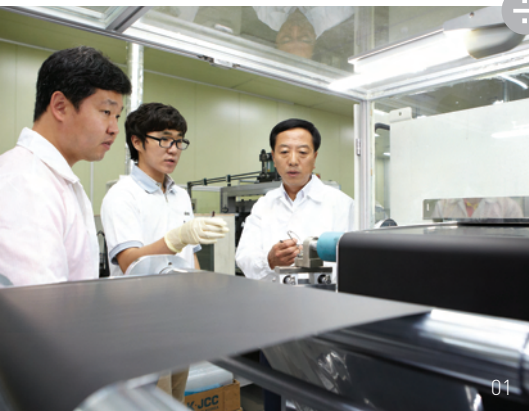
비나텍은 중소기업의 IP경영 성공사례를 발굴,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제4회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 대회'에서 IP경영인 대상인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전국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받아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재산을 기업경영활동에 적극 도입, 성공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한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축하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전라북도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전북지식재산센터의 집중육성정책에 따라 직무 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선행특허조사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과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등 체계적인 IP경영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년 사이 매출액이 2배로 향상되는 등 우수한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날 비나텍은 세계 최초로 친환경에너지 저장장치인 3V 초고용량 커패시터를 개발해 해외 각국에 수출, 녹색도시 실천과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극찬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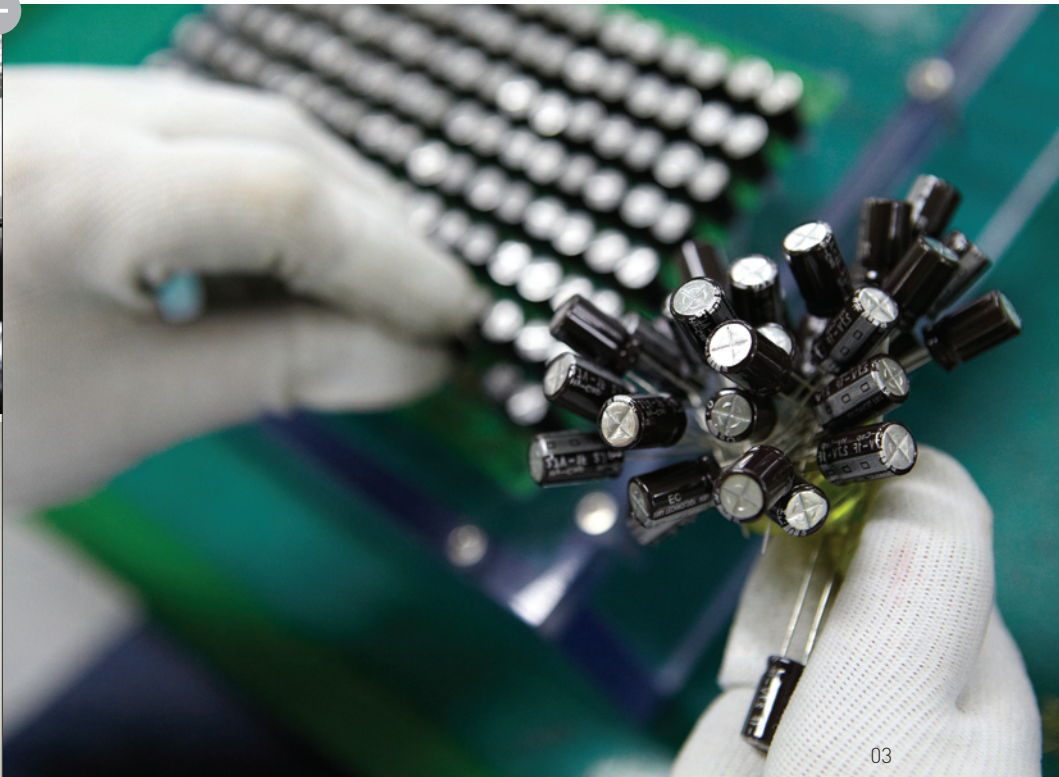
성 대표는 "지원을 통해 개발된 제품은 현재 양산 준비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우수한 특허개발을 확보해 기술 경쟁력으로 삼겠다"고 얘기했다.



01



02



03

“회사와 직원의 성장은  
동일시되어야 한다.  
회사는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직원은 회사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자기계발에  
투자하여야 한다”



04

04. '제4회 전국 지식재산 경영인대회' 대상 상패(성도경 대표)와 'R&D 리더스 클럽' 위촉패(이동렬 전무) 05. 비나텍은 수출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5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



05

#### 꿈이 묻고, 열정이 답하다

비나텍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제품은 칩 타입 초고용량 커패시터다. 칩 타입은 기존 코인 타입보다 더 얇아지고 생산방식도 간소화되어 휴대폰 등 소형제품 메모리백업용 전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비나텍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칩 형태 초고용량 커패시터도 개발, 신뢰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제품은 올 연말 출시예정인 열이 많이 나고, 급격하게 전력을 소모하는 스마트폰 배터리 분야에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 대표는 “7년간 연구 개발 끝에 국내 최초로 칩 형태 초고용량 커패시터를 개발했다”며 “우선 스마트폰에 적용할 계획이며, 이를 발판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비나텍은 구성원 모두가 핵심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인재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곳의 인재 육성시스템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 6개 국가 기관으로부터 ‘Best HRD’ 기업으로 인정 받았다.

성 대표는 “회사와 직원의 성장은 동일시되어야 한다”며, “회사는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직원은 회사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자기계발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시장에 우뚝 설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있는 비나텍. 이제 제2의 도약을 위해 나아갈 때이며, 세계 시장에서 세계 2위가 아닌 1위 기업으로 올라 설 때이다. 직원 모두의 꿈이 하나로 통하고 있는 기업, 비나텍의 경쟁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발명특허

Trend Report

# Garden × edu



흙,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피어난다

가끔, 우리 삶의 원천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곤 한다. 언제 떠올려도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설레던 첫사랑의 기억일까,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일까. 이제와 돌이켜보면, 내 마음과 생각이 오롯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은 꽃과 흙을 만지며 놀았던 어린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했다. 그때에는 그것이 배움인지, 기다림인지, 행복인지 잘 몰랐지만, 그 시절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더욱 평온하고 풍요로운지 모른다. 삶의 원천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자연이다.

자연이 주는  
오감만족



어렸을 때만 해도 자연 속에서 뛰노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귀하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해가 저물며 황금빛으로 물드는 저녁노을, 보슬비가 지나간 후 코를 간질이는 흠내음, 맑은 이슬 맺힌 어여쁜 꽃,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자연의 품에서 보았던 것 하나하나가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는 원천임을 알았다더라면, 그 소중한 순간들을 더욱 더 살뜰하게 가슴에 품었을 것이다.

요즘의 도시는 뻥뻥하고 높은 건물로 가득하다 이 도시를 무채색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색이 다양하지 않고, 시야가 좁다. 나무나 꽃들이 서 있을 자리도 여의치 않아 도시에서 자연을 만나기란 녹록치 않다. 이런 공간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연을 그저 공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어우러진 삶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고 있다. 그래서 기계와 더욱 친한 아이들에게 자연 속에서 노는 법을 알려주고, 기다림의 미학을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그것이 바로 가드닝과 교육을 접목한 '가든 에듀'이다.

가드닝을 통해 배우는  
기다림의 미학



가든 에듀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의 순리를 배운다. 기계와 친해 빠른 세상만을 접한 아이들에게 오랜 시간과 지극한 공력(功力)이 필요한 자연의 일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며 이내 즐거움을 느낀다. 그렇게 자연과 교감을 나누게 되고, 추억을 가슴 속에 담는다.

기다림은 아이들의 마음을 키운다. 그 안에서 생각의 꽃이 핀다.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게 채소와 열매에 관심을 갖게 하고 흙을 만지고 노는 사이 오감이 발달한다. 가드닝은 그 자체만으로도 배움의 연속이다.

아이들에게 생활 속  
가드닝을 선물하자



가드닝에 대한 관심은 한참 전부터 이어져 왔다. 주말농장이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최근에는 도시 농부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굳이 밭을 일구기 위한 땅 한 평 마련하지 않아도 아파트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에는 아이들이 직접 채소를 길러볼 수 있도록 아기자기하게 제작된 가드닝 용품이 나오고 있어 가족 모두 함께 할 수 있다.

가드닝은 멀리 있지 않다. 집 근처 공원이나 숲을 찾아도 자연을 만날 수 있고, 더 가까게는 베란다에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또 요즘에는 흙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체험전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어 주말 나들이로도 좋다. 약간의 관심만 기울이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잡는 대신 자연과 함께 노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자연은 아이들에게 행복한 추억,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 줄 것이다. 발명특허





*invention*

# 당신도 '발명왕'이 될 수 있어요

## ● MBC 교양프로그램 <도전! 발명왕> 녹화 현장을 가다

발명은 곧 발견,이라는 말이 새삼스럽지 않을 정도로 지금 우리에게 발명은 꽤나 가까이 다가와 있다. 아마도 대중에게 '발명'과 '창의'라는 단어가 성큼 다가오기 시작한 것은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부터일 것이다. 전자기기와 디자인의 혁신적인 조합에 모두가 감탄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갈증은 이곳저곳에서 신선하게 터져 나왔다. 그리고 여기, 발명 아이디어로 뿔뿔 뭉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 MBC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시사교양 프로그램 <도전! 발명왕>에는 익살스러운 발명품을 만든 사람들이 재치 있는 웃음을 짓고 있었다.



**오늘, 발명 하실래요?**

MBC 에서 새롭게 편성한 <도전! 발명왕> 프로그램은 전국 곳곳에 숨은 에디슨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발상의 전환이 가져오는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면서, 발명의욕을 전 국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제작된 셈이다.

방송인 김성주가 진행하는 해당 프로그램은 4~5명의 시민 발명가가 출연해 각자의 제품을 소개하고 연예인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과 전문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발명왕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난 26일 진행된 녹화에는 총 4명의 발명가가 출연, 일상의 불편함을 개선한 깨알같은 아이디어로 좌중을 폭소케 하고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전문평가단이 심사를 진행토록 해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조은영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을 비롯한 박유연 변리사, 최재봉 교수 등 전문평가단이 고정패널로 참여, 출연진들의 발명품에 적절한 조언과 격려를 이어갔다.

최연소 출연자인 김초현(범계초, 4년) 양은 컵라면이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컵라면 안전용기'를 만들어 주목을 받았다. 평소 컵라면을 좋아한다는 김초현 양은 라면 용기의 아랫부분이 좁아 잘 넘어지는 게 불편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컵라면이 쓰러지면서 뜨거운 물에 팔을 데었다. 이때부터 튼튼한 용기를 만들고 싶었다"며 발명 동기를 전했다. 손자의 효심(孝心)이 돋보이는 발명품도 있었다. 박재모(신천중, 1년) 군이 만든 '트랜스포밍 빨래건조대'가 그것으로, 박재모 군은 시골 할머니댁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빨래건조대를 보고 할머니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들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다. 프로그램 패널들은 박재모 군이 만든 의자에 직접 앉아보고, 제작 과정을 지켜보면서 "웬만한 명품의 자보다 더 값져 보인다"며 감탄을 이어갔다.

01. 전문평가단으로 참여해 출연진들에게 적절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한국발명진흥회 조은영 부회장 02. 남녀노소 물론하고 전 국민이 발명가가 되어 참여가능한 MBC 교양프로그램 <도전! 발명왕>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20분에 방송되고 있다. 03. 왼쪽부터 박재모(신천중, 1년) 군, 김초현(범계초, 4년) 양, 정이환(27세, 직장인) 씨, 오의장(69세) 씨

**관찰하면 어디에든 보이죠**

정이환(27세, 직장인) 씨가 만든 '007 첩가방'은 크게 주목을 받은 발명품이었다. 중화요리 가게를 운영하시던 부모님을 위해 만든 이 제품은 첩가방의 문과 몸체를 일체형으로 개조한 것으로, 방송에 참여한 출연진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정이환 씨는 "일반적인 첩가방은 문과 몸체가 분리형이다. 하지만 문체는 문을 열고 닫을 때 양쪽 이음새가 정확히 맞지 않으면 삐걱거린다는 점이다. 평소 이에 대해 아버지와 함께 고민하다가 새로운 첩가방을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

69세 고령의 나이에도 긴 빨간 머리를 고수하는 오의장 씨는 가장 큰 웃음을 준 출연자였다. 평소 집에서 이것저것 만들고 조립하는 것을 즐긴다는 그는 방송에도 직접 만든 배터리 차를 타고 무대에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이후 아내를 위한 '다이어트 박수 인형'을 공개, 특유의 유쾌함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이날 발명왕에는 일체형 첩가방을 선보인 정이환 씨가 선정됐다. 실용성과 아이디어가 돋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발명왕이 된 정이환 씨는 "발상만 살짝 전환하면 발명은 결코 어렵지 않다. '누군가 했겠지'라는 생각에서 그치지 않는다면 우리 주위에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물건이 무궁무진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심사를 맡은 조은영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은 "출연진들이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발명품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발명 아이디어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다. 주변을 돌아보고 귀를 기울이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발명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 부회장은 "발명이 창업으로 연결되면 물론 좋을 것이다. 또한 그게 발명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발명이 꼭 수익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지 않다. (웃음) 국민들이 발명을 즐기고 가까이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방송에 출연한 시민 발명가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특정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만큼, 지금 우리도 주위를 둘러보며 새로운 발견을 시도해 보는 것을 어떨까. 발명특허



우리가 삶에서  
누려야 할  
행복과 즐거움

‘지금,  
여기의 예술’



01

## 장흥아트파크

우리가 예술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만족감은 무척 크다. 무더진 감각을 깨워서 주변과 자신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고, 그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내 안의 창작 본능을 깨우고 꽉 막힌 일상에 숨통을 틔운다. 하지만 예술은 결코 특별하지 않다. 일상적인 삶의 연속일 뿐이다.

### 일상 창조 조건 '놀이+예술+상상력'

서울에서 30분 정도만 가면, 자연과 함께 문화를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장흥아트파크'를 만나게 된다. 도심에서 살짝 벗어났을 뿐인데, 상쾌한 공기 탓인지 흥겨운 기분마저 든다.

원래 장흥아트파크는 '토탈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1984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사립 미술관이다. 그러나 '문화체험 공간'의 확립을 목표로 3년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2006년 새로이 문을 열었다.



01. 토시코 호라우치 맥아담의 '에어포켓'. 알록달록한 색감에 눈까지 즐거워지는 어린이 놀이터다. 02. 각기 다른 천정고와 아가자기한 구성을 가진 미술관의 6개 전시장에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단순히 작품을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시와 체험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장흥아트파크의 건물들은 나무와 함께 그림처럼 어우러져 있다.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산업 디자이너인 우시다 시게루, 반 시게루, 장미셀 빌모트가 합작해서 설계한 것으로, 특히 우시다 시게루의 작품인 블루·레드·옐로 스페이스는 모던하면서도 멋스럽다. 블루 스페이스는 국내외 거장들의 작품이, 레드 스페이스는 국내 신진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옐로 스페이스는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섬유 아티스트가 만든 그물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은 떠나 할 것 없이 즐겁게 논다. 1층은 모두 통유리로 마감되어 있어 장흥아트파크의 시원한 야외 풍경을 즐기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감성을 자극하는 온유한 공간

마치 방패연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구조의 원형 공연장은 장흥아트파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무대를 중심으로 대형 스크린과 분수로 구성된 이 공간에는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한 이벤트들이 개최된다. 5백 평 규모의 이 공연장은 한 번에 5백여 명을 수용할 수 있어 대규모 공연도 거뜰히 소화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예술을 접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예술적 감성을 기르며, 예술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다. 최근 새 단장한 '가나 어린이미술관'으로 어린이들의 예술놀이 터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체험 활동을 즐기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눈길을 끈다. 어린이가 직접 대형 레고 블록과 종이 상자 블록을 운반해 쌓고 직접 구성물을 만들 수 있는 '블록 팩토리', 집과 학교·병원·시장·소방서 등을 표현해 다양한 직업을 경험케 하는 '마그넷 플레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엄지공주'를 소재로 한 벽화와 소리를 즐기는 '볼풀 아일랜드'와 '사운드 플레이' 등이 있다. 이 공간의 연출 및 기획은 기미노 디자이너와 하태임 작가가, 벽화 작업에는 서유라와 여준환 작가가 각각 참여했다. 미술관 밖으로 나오면, 섬유 미술가인 토시코 맥아담이 만든 B'bob 그물 놀이터가 아이들의 발걸음을 잡는다. 그물 위에서 기고 견고 뛰며 아이들이 가진 에너지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작품이다. 같은 작가가 만든 작품이자 놀이기구로 에어포켓 또한 인기인데, 이 놀이기구의 핵심은 자신의 움직임이 옆의 친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김진송 작가의 나무로 만들어진 놀이터는 아이들이 나무의 질감을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목마, 의자, 그네 등 다양한 동물 모양의 놀이기구들이 있어 즐거움을 더한다. 컴퓨터 게임 등 개인 놀이에만 익숙해져버린 아이들일지라도, 이곳에서 잠시만 시간을 보내면 어느새 친구를 만들어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곳의 핵심은 소프트웨어로서 예술 체험프로그램이다. 분기별로, 또 방학 때마다 늘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며, 어린이 체험관에서 체험을 진행하는데 예술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니 아이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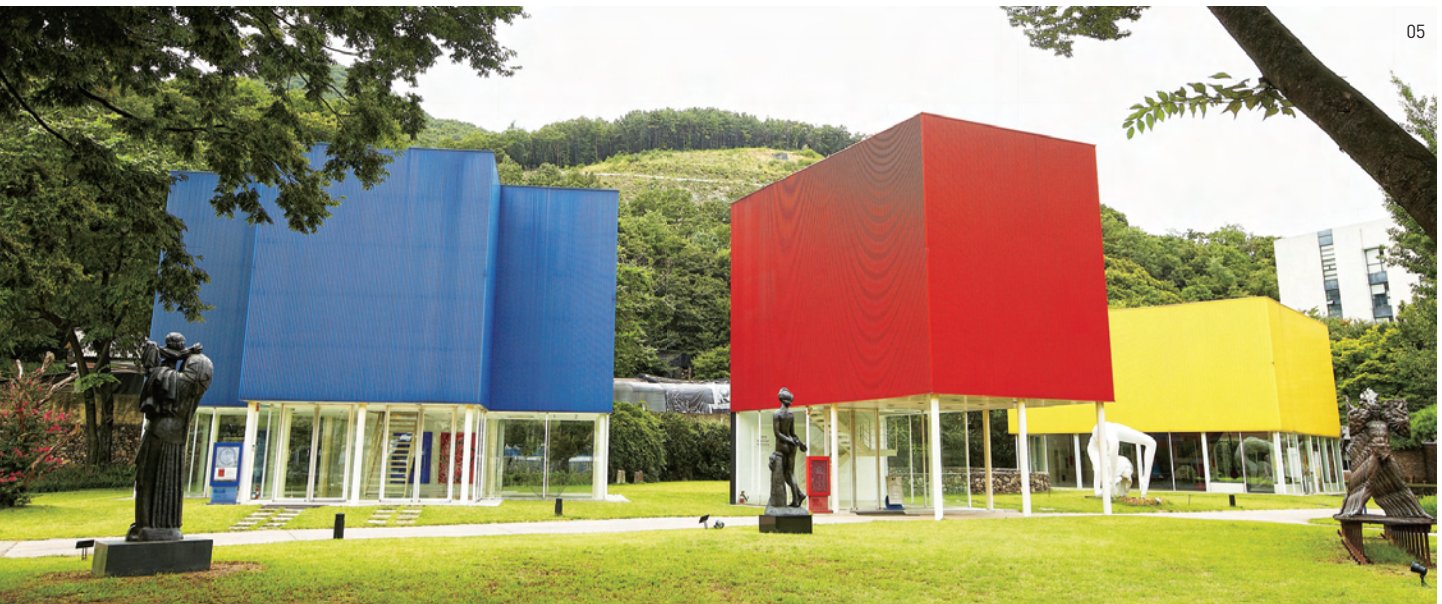


03



04

03. 방패연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구조의 원형 공연장 04. 앨리스가 환상의 세계에서 다양한 모험을 하듯 여러 가지 구성물로 이루어진 청각체험 프로그램 '사운드 플레이' 05. 세계적인 건축가 우스다 시게루의 작품인 블루·레드·옐로 스페이스



05



**예술, 자연, 인간의 조화로운 공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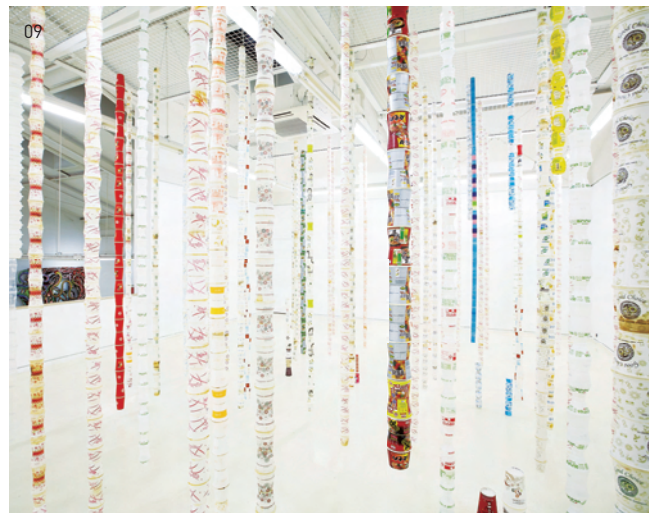
장흥아트파크는 미술관도 이색적이지만 조각공원 또한 아름답다. 녹음이 가득한 조각공원은 그 규모가 9.9㎡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부르델, 아르망, 조지 시걸 등 고전과 현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과, 강대철, 문신, 전국광, 한진섭 등 국내 작가들의 작품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보여주는 문관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곳곳에 벤치도 마련돼 있어 공원 사이사이 놓인 작품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기에 좋다.

이밖에도 다양한 개성과 요구,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휴식공간인 카페와 아트샵 그리고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다. 가족 단위의 나들이에서부터 비즈니스 모임까지 장흥아트파크 내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

나 홀로 시간을 갖고 싶어 찾은 장흥아트파크는 개성을 존중해주는 분위기이다. 미술관을 감상하는 데도 특별한 관람 순서나 원칙이 없다. 답을 요구하며 질문을 던지는 사람 또한 없다. 혼자 보고 즐기는 것에 익숙한 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마치 나만의 숨은 예술 세상을 찾은 듯한 착각을 들게 한다. 곳곳에 전시된 작품을 보고, 체험하고 느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곳이다. 발명특허



06. 무라카미 다카시의 '팬더, 루이비통 트렁크'와 프랑크 스텔라의 '무제'  
07. 최근 새단장한 '가나 어린이미술관'은 가족 단위 관람객과 어린이를 겨냥해 마련한 새로운 공간이다. 08. 블록팩토리는 어린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양한 구성놀이를 할 수 있는 창의성 공장이다. 09. 이동용 작가의 작품, 사람들이 무심히 쓰고 버린 일회용이나 플라스틱 제품을 이용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풍자했다.



# IP + NEWS

## 미래부-특허청,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돈 되는 특허로 만든다

● 지난 9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특허청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 창업 및 사업화로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6대 공동 협력과제를 채택하고 이들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명진흥회 19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 체결식에서 최문기 장관과 김영민 청장은 창의재단, 한국발명진흥회 등 소속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과제와 향후 실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6대 공동 협력과제는 ▲창조경제 관련사업 공동 추진 ▲아이디어·기술 보호 및 활용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 관련 협력 ▲특허성과 검증 효율화 ▲공공정보 공유 및 활용 ▲원천·핵심·표준 특허 획득 및 활용 인프라 등이다.

이들 협력과제가 실행되면 앞으로 일상생활이나 창업과정 등을 통해 얻어진 창의적 아이디어나 독특한 기술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업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특허청은 이를 '지식재산 기반 국민행복기술' 사업과 연계하여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체화하고 지식재산권 획득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아이디어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지 않도록 아이디어 보호에도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력과제도 추진한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산출된 특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연구개발에서 창출된 특허성과를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마련한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원천·핵심·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 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 기획에서부터 평가 단계까지 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두 기관의 협력은 창조경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김영민 특허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무한상상실을 방문해 아이디어를 제안한 대학생 등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 변리사의 특허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52년 만의 변리사법 전면개정



## 특허청, 상표브로커 근절한다

해를 품은 달

● 특허청은 지난 9월 6일부터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리사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계·산업계·법조계·변리사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 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리사 자격요건 강화, 변리사 시험 면제 확대, 권리·의무 강화 등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

첫째,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강도 높은 실무연수를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 둘째, 변리사의 법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로스쿨 지식재산권 교육 이수자를 우대한다. 셋째, 변리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공계 전공교육 이수자를 우대한다. 넷째, 변리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의 권리·의무를 강화한다.

이번 전면개정에 따라 변리사 자격·시험 제도 등이 크게 변경되지만, 변호사와 로스쿨 재학생 등의 기대이익 및 변리사시험 수험생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로스쿨 재학생들은 법 개정 이후에도 특허청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다.

특허분쟁이 격화되는 시대환경에서 이번 변리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변리사 및 변호사의 분쟁 대응 역량 강화는 결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앞으로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다음 2014년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특허청은 유명연예인, 방송프로그램, 외국에서 알려진 상표 등을 모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상표브로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심사를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씨스타’, ‘에일리’ 등의 유명연예인과 ‘정글의 법칙’, ‘무한도전’, ‘해를 품은 달’ 등의 방송프로그램 상표들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다수 출원된 바 있으며, 국내·외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상표를 모방하여 선점하고자 하는 출원도 2008년 90건에서, 2012년 91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특정개인이 한 달 사이에 외국 유명상표를 포함하여 730건이나 상표 출원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상표브로커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첫째, 외국상표 모방행위 근절을 위하여 외국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던 자가 외국기업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없도록 심사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외국상표를 선점하기 위하여 권리자 동의 없이 출원하는 경우, 거래관계 등이 입증되면 상표등록을 거절시킬 것이다.

둘째, 외국상표 등을 모방한 상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정보제공을 기다리지 않고 심사관이 직권으로 상표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적극적으로 거절할 것이다.

셋째, 유명연예인, 방송프로그램 상표는 소비자로서 하여금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가 연예인이 운영하거나 관계있는 것으로 오인을 줄 수 있으므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이를 상표로 등록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넷째, 한 개인이 수백 건의 상표를 동시에 출원하는 등 실제 사용 목적의 상표출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상표사용의사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기업의 브랜드 · 디자인 권리 획득 쉬워진다

2017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 제공

● 특허청은 지난 6월 25일 발표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의 후속조치로 ‘상표 · 디자인 심사품질제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이 실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상표가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Positive 심사를 한다. ‘K2’, ‘NH’, ‘LOCK&LOCK’ 등과 같이 좋은 상표들은 간단하면서도 어느 정도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은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간단하거나 성질표시적 상표는 엄격하게 심사하여 기업이 사용하기 원하는 좋은 상표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경쟁자 간에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않는 상표들은 직접적인 성질표시로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등록시켜주고, 특히 기업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간단하고 성질표시적 상표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극 등록시켜줌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관리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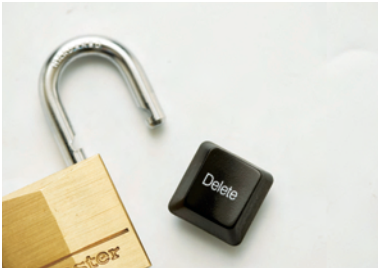
둘째, 창의적인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모방 출원을 방지하고, 창작성 심사를 강화해 나간다. 회사가 개발 중인 브랜드를 종업원이 먼저 상표출원하는 경우와 같이 신의칙에 위반한 출원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의 브랜드 관리를 지원하고, ‘뽀로로’ 등 유명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이나 타인의 독창적인 상표, 연예인, 방송프로그램 명칭 등을 모방한 상표들은 앞으로 정당한 권리자의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이 없어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거절한다.

셋째,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하여 상표 · 디자인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무조건 등록을 거절하고 있으나,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상표 공존동의 제도를 도입하여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없어 선등록권자가 공존동의를 해주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상표견본이나 디자인도면 등 서류작성이 잘못된 경우 출원인이 쉽게 보정할 수 있도록 보정범위를 확대하고, 상품명칭이나 상품명 등 명백한 오기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수정시켜줌으로써 출원인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디자인등록이 거절된 경우에도 도면뿐만 아니라 물품명칭 등 출원서 기재사항 보정으로 해소 가능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재심사청구로 신속히 등록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상표 · 디자인 심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심사기준과 법령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기업의 마케팅 활동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2017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하도록 한다. 금년 5월에 디자인보호법을 23년 만에 전부 개정하여 내년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고, 상표법도 금년에 전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표 · 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을 2017년까지 상표는 3개월, 디자인은 5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희망자나 자영업자 · 소상공인들의 지재권 인식제고를 위하여 독창적인 브랜드 · 디자인 개발 및 관리를 통한 마케팅 성공 사례 전파를 위한 지역순회설명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최근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사업기획이나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각종 공모전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인크루트(gongmo.incruit.com)가 제공하는 국내 공모전 21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모한 아이디어를 누가 가질 것인가에 관한 규정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60%(131개)에 달하고, 40%(86개)만 규정이 있으며, 그나마 규정이 있는 86개도 공모전 주관기관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가 90%(86개 중 77개, 전체 217개 기준 35%)에 이른다. 아이디어 제안자가 갖는 경우는 그 중 7%(86개 중 6개, 전체 217개 기준 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이런 현황을 기초로 공모전 참여경험자 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9.9%의 사람들은 국내 공모전이 아이디어 제안자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귀속문제(36.1%), 아이디어에 대한 활용 및 보상(24.6%)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김용선 과장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공모전의 아이디어 보호 강화는 필수적”이라면서, “특허청은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과정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귀속, 정당한 보상 등을 담은 아이디어 보호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태양광과 함께하는 스마트 캠핑

휴대용  
태양광 충전장치가 뜬다



- 가족단위의 캠핑이 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산이나 계곡으로 피서 온 캠핑족들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미리 충전해온 배터리에 의존하여 야간 전등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같은 전기전자제품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 '휴대용 태양광 충전장치'만 있다면 전기가 없는 곳이라도 스마트한 캠핑을 맘껏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휴대용 태양광 충전장치'에 관한 국내특허출원은 총 76건으로 전체의 70%정도가 최근 10년간에 집중되어 있고, 2009년 이후 적은 양이지만 꾸준히 출원되고 있으며, 태양광을 이용한 모자, 미니선풍기, 키보드, 백팩, 자전거, 휴대폰은 물론이고 태양광 텐트 또는 옷까지 그 적용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세부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모듈조립기술이 42건으로 55.3%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충전기술 33.0%, 전지소재기술 7.9%, 출력제어기술 3.9% 순으로 분석됐다.

기존에는 소형의 태양전지 자체가 내장되어 바로 출력되는 제품이 주류였으며, 최근에는 형상의 다변화 또는 소재의 다양성으로 인해 전기를 충전하고 이를 별도로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부착형 전원공급장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모듈이 가능하게 되어 가볍고 휴대하기 간편한 모듈조립기술과 충전기술이 점차 그 출원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태양전지는 야외활동 중 충전에 제약이 있고 충격에 취약한데 흐린 날씨가 낮은 조도에서도 충전이 가능한 플렉시블 고효율 전지소재기술이나 일부가 파손되더라도 나머지 셀의 출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셀 설계제어기술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 KIPA + NEWS

## 우리회, 대학생·청년을 위한 아이디어클럽형 무한상상실 개소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특허·디자인 출원  
및 창업지원

● 우리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지난 8월 23일 '무한상상실 청년아이디어클럽' 개소식을 개최하고 청년들을 위한 무한상상의 공간을 오픈했다. 이번에 개소한 무한상상실은 지난 1일 국립과천과학관에 개소한 1호 실험·공방형 무한상상실에 이어, 미래부의 2호 아이디어클럽형 무한상상실이다.

무한상상실 청년아이디어클럽에서는 3~5명의 아이디어팀을 구성하여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등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한, 배치된 3D프린트를 사용하여 누구나 아이디어를 실물로 구현해 볼 수 있다. 구체화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특허·디자인 출원 비용을 지원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팀에 대해서는 창업컨설팅 및 사업화를 위한 각종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개소식 행사에서는 '자석압정'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한 대학생 발표와 전문가 멘토링 시연이 있었고 '상상의 기술 - 생활 속 아이디어 발굴 사례를 통한 아이디어 창출 방법'이라는 주제로 열린특강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아이디어 발표를 한 이현상(26세, 한국외대) 씨는 "공학박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등의 멘토가 내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언을 해주는 방식이 매우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확산된다면 청년들의 취업걱정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날부터 무한상상실 청년아이디어클럽을 본격 운영하게 된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올해 무한상상실 청년아이디어클럽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쳐 무한상상실의 대표적인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우리회, 신용보증기금과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우리회, 중국 지식재산전략 세미나 개최

- 우리회는 신용보증기금과 지난 8월 6일 마포구 공덕동 신용보증기금 본사에서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신력 있는 지식재산권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기술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러한 협약은 새 정부의 창조경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창업·중소기업이 우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에 기초하여 큰 부담 없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기에 주목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은 우리회의 기술가치평가를 거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10억 원까지 지식재산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결과에 따라 매출실적 등에도 불구하고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보증료율도 최대 0.5%포인트 차감하는 등 우수한 지식재산 보유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할 방침이다.

이번 지식재산 보증의 총 지원규모는 3,000억 원 수준이며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그동안 유형자산 위주의 신용평가를 통해 금융지원이 이뤄져 초기 창업기업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이번에 한국발명진흥회와 신용보증기금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우리회는 지난 9월 26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중국 지식재산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중국 개정상표법 동향 파악을 통한 해외 진출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회 회원사, 기업·대학·변리사 등 특허담당자, 중국 지식재산권에 관심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 유니탈렌트허법률사무소 Ying, Huang 변호사의 ‘중국상표법 개정안’, Yazhou, Zhang 변호사의 ‘중국 상표소송 및 상표단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오승택 사업지원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중 간 지식재산 이슈와 분쟁이 많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특허 대응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해외, 특히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리전략을 마련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우리회,  
EBS 미디어와 MOU 체결**

- 우리회는 EBS 미디어와 지난 8월 5일 19층 회의실에서 창의발명교육 콘텐츠 발굴·확산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EBS 방송프로그램(발명이 팡팡) 기반의 콘텐츠 공동기획, 개발·보급, 발명교육 교보재 공동기획 등 발명교육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게 된다.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EBS미디어와의 협력을 통한 창의 발명교육 콘텐츠 발굴 및 확산 노력이 전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 발현을 도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회,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실천**

양평 천사의 집 ·  
용산 가브리엘의 집에  
후원금 전달

-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한가위를 맞아 KIPA 사회봉사 단장으로서 지난 9월 13일 경기도 양평 천사의 집과 서울 용산 가브리엘의 집을 방문해 후원금 및 생필품을 전달했다.  
조은영 부회장은 “소외된 이웃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IPA 사회봉사단’은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비전으로 2007년 4월 발족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방문하는 등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회,  
「microsoftware」7월호에  
공개SW 활용 성공사례 게재



KIPA  
인사동정

● 한국의 대표적인 IT잡지인 「microsoftware」 7월호에, 공개SW 활용 성공사례로 우리회의 '공개 SW 기반 서버 재구축으로 유지비용 절감 및 향후 확장성 확보'가 게재됐다.

잇따른 특허권 소송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용량 특허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해 다양한 계층에서 활용 가능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회는 국내 특허 기술의 발전과 적절한 가치 평가의 전략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분석평가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지식자산을 금액으로 평가하는 '가치평가'와 달리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은 기술성, 권리성, 활용성을 토대로 등급으로써 지식자산을 평가한다. 이는 대량의 특허를 등급별로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우수 특허 몇 종만을 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질적으로 우수하고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특허 가치평가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더해 특허 경쟁력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특허 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도 효율적인 정보 제공으로 기여 중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우리회는 리눅스와 스프링 프레임워크 등의 공개SW를 활용한 특허평가시스템인 'SMART'를 오픈했고, 이어 방대한 양의 미국특허 데이터까지 포괄하는 특허 분석평가시스템 'SMART3'를 구축하면서 기존에 자연어 처리를 담당하던 서버의 OS를 공개SW로 교체했다. 이를 통해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시스템 확장성을 확보하는 결과를 얻었다.

우리회 지식재산평가거래팀의 광정애 전문위원은 "특허 ROI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 기관 입장에서는 예산확보와 사업 진행을 수월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다"면서, "이밖에도 공공기관 시스템의 특성상 시스템구축 과정에서 안정성과 활용성, 기술지원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는데 레드햇 리눅스의 경우 이를 충분히 충족시켰고, 공개 SW로 OS를 변경 하면서 시스템 호환성을 고려해 WAS도 톱캣 기반으로 변경한 것은 시스템 엔진을 효율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복직

이지영 계장	인재개발연구본부 발명영재교육연구원(2013. 9. 9)
황혜진 계장	사업지원본부 지역지식재산팀(2013. 8. 27)

● 퇴직

이동준 주임	인재개발연구본부 교육기획팀(2013. 9. 9)
이정락 주임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평가거래팀(2013. 7. 10)

● 청원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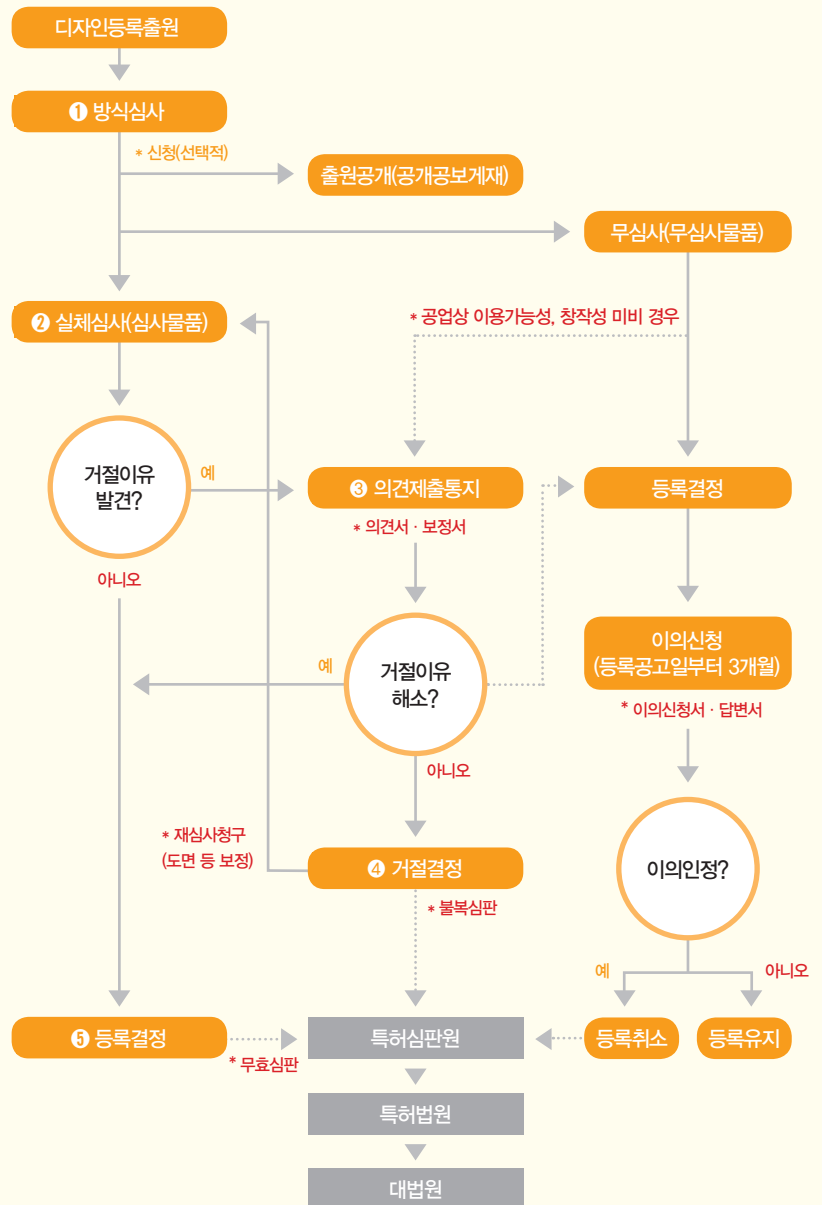
이민우 과장	인재개발연구본부 발명영재교육연구원(2013. 9. 23) (기간 : 2013. 9. 23 ~ 2014. 3. 22)
--------	---

# 심사 알아보기 II

## 디자인 심사 절차

출원서가 접수되면 일정 방식심사 후 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실체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결정을 하며,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절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합니다.

### Q. 흐름도



**Q.**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다는 디자인의 특성상, 디자인보호법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① 유사디자인제도**

·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 둘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한 벌의 다기세트, 한 벌의 응접세트 등 법정 86개 물품)입니다.

**③ 비밀디자인제도**

· 디자인등록 출원시부터 최초 등록료 납부일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디자인을 비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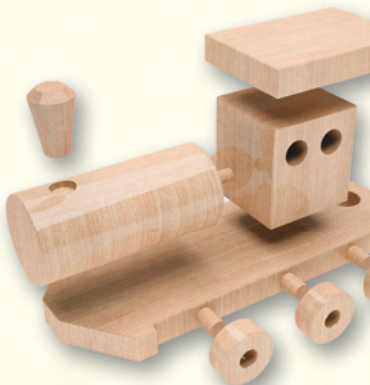
· 1개의 출원서에 1개의 디자인을 출원해야 하나, 디자인 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20개 이내의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⑤ 부분디자인제도**

· 물품의 부분(커피잔의 손잡이 부분, 안경테의 귀걸이 부분 등)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⑥ 글자체 디자인의 보호 및 효력제한 (2005. 7월 이후)**

· 글자체[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도 물품으로 의제하여 보통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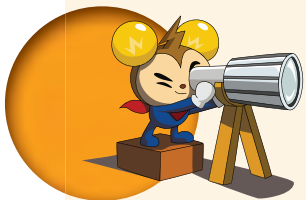


**Q.** 디자인 무심사 제도에란 무엇인가요?

**A.** 직물지, 포장지 및 의복 등과 같이 유행성이 강하고 모방이 용이한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품목에 대해 기본요건과 공업상 이용가능성, 창작성 여부만을 심사(선행 디자인 조사는 하지 않음)하여, 등록시킴으로써 조기에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KIPA QUIZ

## Readers Comments



### 2013년 09+10월호 퀴즈

- Q.**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 시행하며,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저작권 등 지식재산 전 분야에 관한 기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이 시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Q.**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 기본요건(방식심사, 디자인의 성립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만 심사하여 등록시키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 2013년 07+08월호 퀴즈 정답

01. 국유특허
02. 열 시스템

### 2013년 07+08월호 퀴즈 당첨자

강나이 skdlcjst\*\*\*\*@naver.com (부산광역시 남구)  
임경희 kh20\*\*\*\*@korea.kr (대전광역시 대덕구)  
김정희 suryeo\*\*\*\*@naver.com (광주광역시 북구)

### 최지호 독자 (충청북도 청원)

〈발명특허〉를 읽다보면 지식재산권에 대해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속 발명이야기'에서 윤용일 농부 발명가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발명, 특허라 하면 소위 대기업 위주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개인 발명가가 본업 및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수의 특허권을 갖고 있고, 생활 속에서 발명한다는 내용이 좀 더 특허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었습니다.

### 전경욱 독자 (경기도 평택)

2013년 청소년 발명페스티벌 행사소식을 잘 보았습니다. 미래의 에디슨을 꿈꾸는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엿볼 수 있었어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열정으로 부단히 정진하는 우리의 꿈나무들 그리고 미래의 과학기술을 책임질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한국발명진흥회와 특허청의 노력을 잘 보여준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에 창조적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이런 행사들이 보다 자주 개최되고 널리 홍보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식재산 전문정보지 [발명특허]를 읽고 퀴즈의 정답과 독자의견을 smp@kipa.org로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일 11월 12일)



한국발명진흥회가 발간하는 「발명특허」는 발명진흥사업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동향 및 정보를 다루는 전문정보지로 본회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원고 투고 및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 게재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원고 모집 안내

2013년도부터 새롭게 개편된 「발명특허」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 의견과 정책·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간되는 지식재산 전문정보지입니다.

콘텐츠 중 [IP Focus]에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정보를 선도하고 정책·기술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투고를 받고자 합니다. 단, 길고 딱딱한 글이 아닌 신문의 칼럼 형식으로 누구나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원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모집 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칼럼
- 원고 주제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롭게 선택
- 원고 분량 : 원고지 22매~24매(A4용지 10Point, 3매 이내)
- 모집 시기 : 상시 모집
- 보내실 곳(E-mail) : smp@kipa.org



## ●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기획팀(Tel. 02-3459-2727, Fax. 02-3459-2729)

광고가격(2개월 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3	칼라전면	700,000	부가세 별도
내지 화보		500,000	

## ● 한국발명진흥회 지회 안내

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박성용	김유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601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김윤호	김현웅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076 아이씨티빌딩 201호	033-264-6580
전북지부	-	정승원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15-1	063-471-1284



# 지식재산 취업포털

[www.ipin.or.kr](http://www.ipin.or.kr)



지식재산 취업포털

지식재산분야 취업을 위한 정보, 인맥, 기회를 한번에!

## 지식재산 인재의 경쟁력이 미래를 좌우한다!



### ipin

- 지식재산 분야 취업정보
- 지식재산 구직을 희망하는 인재정보
- 지식재산 관련 교육/행사정보
- SNS를 통한 지식재산 정보공유

ipin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제공하는  
SNS기반의 종합취업포털 서비스입니다.

[www.ipin.or.kr](http://www.ipin.or.kr)





# 2013년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 신청안내

이전받은 특허기술로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예비창업자 및 특허기술 사업화 기업에게 성공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2013년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행사계획

- 일 시 : 2013. 11월 중순(예정)
- 장 소 : 서울 코엑스(예정)
- 내 용 :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성공사례 발표, 수상자 결정 및 시상식
- 주최/주관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 후 원 : 산업통상자원부

### ● 참가신청

#### • 신청자격

- 이전받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기술로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
  - \* 사업화 성공의 개념은 신청기업의 주관적 판단에 따름
- 기업이 이전받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기관 및 개인(기술거래기관, 기술투자기관 등)
-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에 해당 기술을 제공한 기술 공급기관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 특허기술의 기술이전을 추진한 기술중개기관 및 개인
  - \* 단, 기술중개기관의 경우 기술이전 추진 과정의 활동내용을 평가함

#### • 신청기간

- 2013. 9. 16(월)~10. 15(화) 까지(당일 도착분에 한함)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 단, 접수시 전자문서도 함께 제출요망(CD, E-mail 등)
- 신청서 양식은 IP-Mart 홈페이지(<http://www.ipmar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본선사례 발표작 선정(10월말 예정)
- 본선심사: 본선 참가기업의 사례발표 후 현장에서 심사 및 상경 결정(11월 중순 예정)

### ● 시상 및 포상내역

- 금 상(1사) : 상장 및 상금 500만 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은 상(2사) : 상장 및 상금 각 200만 원(특허청장상)
- 동 상(5사) : 상장 및 상금 각 100만 원(한국발명진흥회장상)

### ● 수상기업 지원혜택

- 수상작 전체를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성공사례집'으로 제작하여 중소기업 등에 배포 및 홍보
- 성공사례를 언론기관, 관련 업종별 단체, 특허청 발행 간행물 등을 통하여 홍보

### ● 문의 및 접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거래팀

- 주 소 :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1(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거래팀
- 전 화 : 02-3459-2882
- 팩 스 : 02-3459-2939
- E-Mail : faney@kipa.org
- 홈페이지 : [www.ipmart.or.kr](http://www.ipmart.or.kr)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 2013년 교육일정표



(단위: 원)

지식재산 일반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환급/지원	수강료(회원사)
<b>지식재산 일반교육</b>				
1	01.23~01.25	지식재산권 기초 1기	노동부 환급 약 15%환급	각 과정당 55만(48만)
2	01.30~02.01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성 판단 1기		
3	02.20~02.22	강한 디자인 창출 및 저작권 1기		
4	02.25~02.27	강한 상표를 위한 브랜딩 전략 1기		
5	03.06~03.08	지식재산권 기초 2기		
6	03.13~03.15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1기		
7	03.20~03.22	특허청구범위해석과 침해판단 1기		
8	03.27~03.29	특허평가 및 라이선싱 계약 1기		
9	04.03~04.05	지식재산 분쟁대응 및 협상 1기	노동부 환급 약 15%환급 /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허청 80% 지원	
10	04.10~04.12	미국특허마스터(출원~소송) 1기		
11	05.08~05.10	강한 디자인 창출 및 저작권 2기		
12	05.22~05.24	강한 상표를 위한 브랜딩 전략 2기		
13	05.29~05.31	지식재산권 기초 3기		
14	06.03~06.05	특허청구범위해석과 침해판단 2기		
15	06.12~06.14	TLO를 위한 연구성과 관리	노동부 환급	
16	06.19~06.21	특허평가 및 라이선싱 계약 2기	노동부 환급 약 15%환급 /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허청 80% 지원	
17	08.21~08.23	지식재산권 기초 4기		
18	08.28~08.30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성 판단 2기		
19	09.04~09.06	중국특허마스터 (출원~소송)		
20	09.11~09.13	강한 디자인·상표 실무		
21	09.25~09.27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2기		
22	10.08~10.11	특허청구범위해석과 침해판단 3기 (※10.09 한글날 휴무)		
23	10.14~10.16	특허평가 및 라이선싱 계약 3기		
24	10.16~10.17	특허경영 우수기업 IP전략		
25	10.23~10.25	지식재산 분쟁대응 및 협상 2기		
26	10.30~11.01	미국특허마스터 (출원~소송) 2기		
27	11.06~11.08	유럽특허마스터 (출원~소송)		
28	11.13~11.15	주요국(IP5) 지식재산권 비교 실무		
29	11.20~11.22	지식재산권 기초 5기		
소계		29회		



한국지식재산센터



제1교육장



제2교육장



교육생 휴게실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 2013년 교육일정표

(단위: 원)

지식재산 특별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환급/지원	수강료(회원사)
1	02.15	연구원들을 위한 발명신고서 작성 1기	-	각 과정당 18만(15만)
2	03.12	단계별 특허비용 및 기일관리 전략 1기		
3	04.16	특허 주요심사기준(화학생명)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허청 교육비 80% 지원	
4	04.23	특허 주요심사기준(전기전자)		
5	05.02	무효심판 대응전략		
6	05.14	영문 지재권 용어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1기	-	
7	06.11	특허소송시 변론능력 SKILL UP *변리사 의무연수 6시간 인정		
8	07.01	특허침해 감정서 작성 및 손해액 산정		
9	09.02	변호사를 위한 상표소송 실무 *변호사 의무연수 6시간 인정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허청 교육비 80% 지원	
10	09.24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		
11	10.01	영문 지재권 용어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2기		
12	10.22	연구원들을 위한 발명신고서 작성 2기		
13	11.05	단계별 특허비용 및 기일관리 전략 2기	추후 공지	
14	11.27~28	특허소송 실무 및 최신 판례 동향 * 변리사 의무연수 인정 예정		
소계		14회		-

(단위: 원)

지식재산 국제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수강료
1	04.20~04.26 (5박 7일)	지식재산 실크로드_이스라엘(해외연수)	440만
2	10.12~10.20 (7박 9일)	지식재산 실크로드_북유럽(해외연수)	690만
소계		2회	-
합계		47회	

- 상기 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http://www.ipcampus.net>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노동부(고용보험 가입대상자): 교육비의 약 15% 환급 / 특허청(상호출자제한기업 외 대상): 교육비의 80% 환급
- 환급 중복 지원 불가, 특허청 지원 대상자 회원사 할인 제외

### 기업 맞춤형 방문 위탁교육



과정문의 및 연락처

www.ipcampus.net Tel: 02-3459-2762,2767,2781,2782 Fax:02-3459-2789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당신의 양심을 지켜드립니다

공익침해행위,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110



**안심하세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분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 보호 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분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보상 지원 :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 법적 책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징계의 감면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량식품 제조·유통, 폐기를 불법 매립, 가짜 냉매가스 판매, 의약품 리베이트, 가격 담합 행위 등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homepage : [www.acrc.go.kr](http://www.acrc.go.kr)

# 누군가에겐 폰



# 누군가에겐 뎃

불법 전화영업과 명의도용 사기 피해!  
통화할 때 10초만 생각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사기,  
통화할 때 10초만 생각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www.msaler.or.kr에서 명의도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폰 및 개통폰의 할부금 대납을 약속하는 불법 전화영업  
전화 가입 시, 가입 조건과 다른 경우 최대 백만원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구두약속, 가입신청서와 다른 온라인 가입 사기  
구두약속은 가입신청서와 별개의 사기 행위로, 통신사의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휴대폰 개통에 따른 대출을 조건으로 명의대여를 유도하는 개통 사기  
범죄금, 스타벅스카드, 소액결제용 등으로 쓰이며, 피해는 명의를 대여해준 고객 책임입니다.
- 대포폰 및 도난, 분실된 휴대폰을 해외에서 거래하는 해외 밀반출  
일반인도 범죄에 쉽게 노출 될 수 있으며, 불과 2~3일 내에 유출되어 악용될 수 있습니다.
- 재택 근무 및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고용을 빌미로 불법 명의 도용  
업무용 폰 개통 시 연체금 및 할부금으로 몇 백만원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중고 스마트폰을 팔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 피싱 등에 사용  
인증받지 않은 매입장자를 피하고, 거래 전에는 공정초기화 등으로 정보를 확실시 삭제해야 합니다.



## 희망도우미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2013. 6. 19.부터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국선 변호사로서,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전문 적인 법률지원을 합니다.

### ● 누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내지 제9조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성폭력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제도란?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오로지 성폭력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 업무만 전담하는 변호사입니다.  
현재 원스톱지원센터 5곳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6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 제4조(특수강간 등)
-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 신뢰로 풀어가는 남북관계, 신뢰로 하나되는 한반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평화와 통일을 향한 약속입니다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 남북간 합의 이행을 통해 신뢰를 쌓겠습니다.
-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겠습니다.
-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기초로 하겠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 정부 3.0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정부3.0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개방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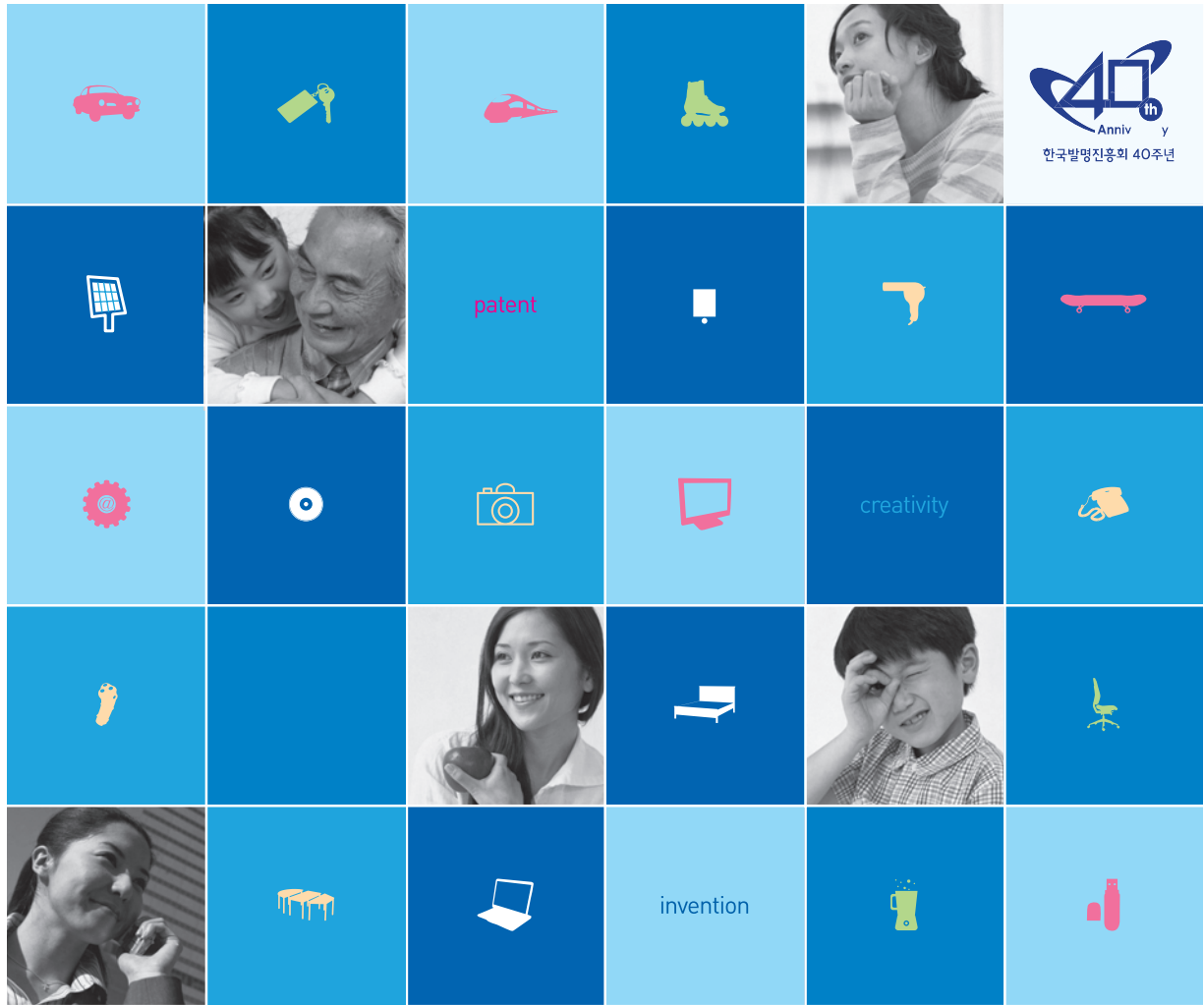
소통

협력



안전행정부  
www.gov30.kr





# 국민이 경쟁력인 나라

대한민국의 경쟁력,  
바로 여러분의 아이디어입니다.  
지식재산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의 상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도전하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도전이 전문성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한국발명진흥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지식재산 전문기관으로 걸어온 길 40년  
이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지식세상을  
만들어겠습니다.

“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이 금지됩니다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이  
금지됩니다.

지역	기존 금지 품목	관리 강화
1 후쿠시마현	까나리, 대구, 산천어 등 49종	모든 수산물
2 이바라기현	민어, 대구, 뱀장어 등 10종	
3 군마현	산천어 등 2종	
4 미야기현	농어, 대구 등 9종	
5 이와테현	농어, 대구 등 6종	
6 도치기현	황어 등 3종	
7 치바현	붕어, 잉어 2종	
8 아오모리현	대구 1종	

## 모두가 행복한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주거해결

지역소통 및 교류공간

육아센터, 어린이놀이방

사회적기업 유치

파출소, 보건소, 주민센터

야외 문화공연장

야외스포츠클럽, 휴식공간

창업·취업센터

## 희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행복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일자리창출, 문화공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공간입니다

### 행복주택이란?

도심 내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주거타운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취업지원 및 소통공간으로 탄생하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생활문화 공간입니다.



문화의성  
해발산  
여한민족




10월은 문화의 달

나도 예술가.  
여기는  
문화마을

2013 문화의 달 문화주간

일시 : 10. 16(수)~20(일) / 장소 : 문화역서울 284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기업의 소중한 재산과 일자리를 지켜주는

상표와 상호 차이 알고 가실게요

상호는 회사의 이름, 상표는 상품의 이름!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상표는 등록되면 우리나라 전역에 효력이 미치게 되고 독점배타권을 갖게 됩니다.(상호는 불가)



상표 취득! 이제 국민입장에서 바뀝니다!

세계최고수준의 빠른  
상표디자인 심사처리를  
통해 조기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상표(서비스표) 등록절차

- 특허청(인터넷/방문)에서 출원인 코드받기 ▶ 선행상표검색(키프리스)
- ▶ 온라인출원 또는 현장(서면)제출
- ▶ 상표출원료 납부 ▶ 심사 ▶ 등록

기업간 경쟁을 해치지 않은 상표는  
성질표시로 보지 않고, Positive 심사하여  
등록받을수 있게 됩니다.



Ω OMEGA  
VS  
Ω OMEGA

유사한 상표라도 선등록한 출원인이  
동의하면 상표를 등록 받을수 있게  
'상표공존동의제도'가 도입된다.



개발중인 브랜드를  
종업원 관련자가 먼저 상표 출원하는 신의칙 위반에 대한  
거절하는 규정이마련되어 원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유명캐릭터, 연예인, 방송프로그램 등  
모방상표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조사해  
거절하여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유명상표만으로 한정하던  
상표 식별성이 '특정인의 상표'로  
완화되어, 원하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상표견본, 디자인 도면 등 서류작성이  
잘못되었더라도 출원인이 쉽게 보정  
할 수 있고 재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2014년 1월 1일부터 관공서·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도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로 생활하세요!



도로명

건물번호

도로명주소란?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쉽게 표기하는 주소입니다

☛ 단독주택

지번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리19**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길 100**

☛ 공동주택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아파트 □□동 △△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동 △△호(서초동, ○○아파트)

# 용기있는 복지부정 신고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가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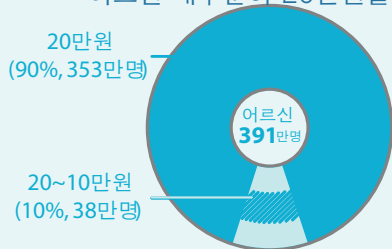
신고자 철저한 비밀보장  
보상금 최대 20억원 지급

- ✓ 신고상담 국번 없이 ☎ 110
- ✓ 팩 스 02-2110-0678
- ✓ 인 터 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 방문·우편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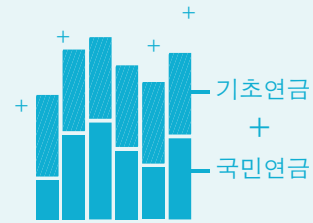
## 든든한 행복 노후의 시작, 기초연금 (정부안)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부분이 20만원을 받습니다



대상이 되는 70%어르신의 대부분(90%)인  
353만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으시면서 최대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대상 어르신 모두가 현재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무연금자 (303만명)

연금가입자 (88만명)

소득 하위 70% (391만명)

소득 상위 30% (207만명)

# 2013년 9월 26일부터 인터넷뱅킹 이용 시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됩니다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후  
고객님의 예금 등을 인출해가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본인확인 방법



전면시행 이후 개인고객이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려는 경우  
**추가적인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① 공인인증서를 발급/재발급 받거나 타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300만원 이상(1일 누적 기준) 이체하는 경우
- ※ 자세한 내용은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사기 피해예방 유의사항

1. 고객 정보(휴대폰, 집 전화, 사무실 전화 등)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2. 보안카드번호, 금융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피싱사이트에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피해 발생 시에는 경찰청 (☎11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대출사기,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와 상담하세요



# 복지 수요별 달라진 서민·중산층 혜택

		2013년	2014년	비고
보양·양육	접종비 본인부담	연 5만원(1회, 5천원) (0세 기준)	본인부담금 폐지	연 △5만원
	보육료	연 1인당 264만~906만원		지자체 부담 완화로 인정적 무상보육 기반구축
	양육수당	연 1인당 120만~240만원		
대학교육비	셋째아이 등록금	-	연 450만원	1학년부터 시행
	대학생 장학금	연 67.5만~450만원	연 90만~450만원	연 +22.5만~180만원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의료비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 연 94만원	본인부담 연 최대 34만원 * '16년 제도개선 원로시 기준	연 △60만원 (진료비 감감)
	임플란트	1개당 150만 ~300만원 부담 * 관행수가 예시	1개당 75만 ~150만원 부담	개당 △75만~150만원 (75세 이상)
	본인부담 상한제	200만~300만원 부담	120만~250만원 부담	연 △50만~△80만원 (연소득 3,800만원 이하)
주거지원	주택 바우처	연 96만원 (주거급여)	연 130만원 (주택바우처)	연 +34만원 (*14.10월 시행)
소득지원	사병보급	연 140만원	연 162만원	연 +22만원(상병기준)
	기초연금	연 120만원	연 최대 240만원	연 최대 +120만원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장애연금	연 120만원	연 240만원	연 +120만원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70%)

# “참신한 아이디어, 창조경제타운으로 모여라!”

정부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온라인 공간으로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창조경제타운'을 9월 30일 오픈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지만 기술이 없거나, 전문가를 만나기 어려운 이들을 멘토링으로 지원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더하고 나누는 공간입니다.

창조경제타운의 주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 창조 아이디어 제안

아이디어로 사업에 도전하세요.  
아이디어 구현을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 공유 아이디어 공간

생활 속 지혜, 제품 아이디어 등을 공유합니다.  
이용자와 멘토의 생각이 더해져  
아이디어가 발전해 나갑니다.



## 아이디어 사업 지원정보

아이디어 사업화에 필요한  
정부와 민간의 지원정보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 다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경제타운

타운 방문하기 →



## 창조경제 사례

기업, 개인, 연구소 등의  
창의적 제품과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각 분야의 성공 사례를 전시합니다.

다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경제타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창조와 도전으로 반짝이는  
'발명특허'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생각의 불편이 현실을 뛰어 넘어  
창조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곧 개인과 인류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발명'은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도전'입니다.